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웃 돕기에 기업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교원그룹의 건강 가전 브랜드 '웰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내 공간 전체를 살균 소독하는 '에어살균 서비스' 무상 지원에 나섰다. '에어살균 서비스'는 가정집을 비롯 유아동 교육시설, 사무공간, 식당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실내를 전문 방역소독기를 사용해 살균 소독하는케어 서비스다.

관리전문가 '웰스매니저'가 방문해 전용 약품을 가열, 증발시켜 초미립자로 분사해 공간 내부와 화장실, 가구 등 좁은 틈 사이 사이까지 소독한다. 약품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만 구성됐다. 방역 후 살균제를 닦아내지 않고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전하다. 웰스에 따르면 이 약품은 페렴균 및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유해세균을 살균하고 생활 악취까지 제거한다.

웰스는 전국 시도 어디서나 에어살균 서

웰스, 전국 시도 어디서나
직접 방문 친환경 살균 소독

카카오커머스 손소독제 전달
협력사와 '선물기부' 캠페인

KT '기업전용 톡' 3개월 무료
홍두당, 대구의료진에 빵 전달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역소독기 330대를 준비했다.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보유 수량을 지속 늘릴 예정이다.

대구 기반의 K푸드 전문기업 '홍두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구 지역 의료진을 위해 생크림 단팻빵 1600개를 기부했다. 생크림 단팻빵은 17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 대구 지역 선별진료소 3곳에 전달했다.

홍두당은 대구 명물 빵집 '대구근대골목 단팻빵'을 운영하는 대구 지역 대표 기업이다. 대구근대골목단팻빵은 대구 근대문 화골목 인근에서 시작해 대구 '빵지순례'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전국구 베이커리 브랜드로 성장했다.

카카오커머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이웃과 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손소독제 12만 개(5억 원



건강가전 브랜드 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 방역소독기를 사용해 살균 소독하는 '에어살균 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



KT는 원격·재택근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전용 톡(Talk)' 솔루션을 신규 신청 시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규모)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24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선물기부' 페이지를 개설하고 코로나19 관련 기부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애플워치, 페렌벨, 앤드스타일, 엘지생활건강, 바이오세상, 한국인삼공사, 스파클주식회사, 네추럴라이프 등 총 8개의 제조회사들이 물품의 가격을 대거 인하해 이번 캠페인을 지원한다. '선물기부' 페이지에서는 치약·칫솔세트, 살균스프레이, 홍삼 음료, 비타민, 생수 등 위생용품 및 생필품 7종을 제공한다. 기부를 원하는 이용자가 이 중 원하는 물품을 구매한 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직접 선물하는 방식이다.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이용자는 어려운 이웃이나 의료진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도 남길 수 있다. 이용자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는 선물하기 캠페인 페이지 내 전광판 배너 형태로 띄워질 예정이다.

통신업계도 힘을 보탠다.

먼저 KT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 및 재택근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전용 톡(Talk)' 솔루션을 신규 신청 시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KT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도 신규로 KT 기업전용 톡을 제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업전용 톡'은 현재 전국 80여 기업과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무료 신

청 기간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다.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하나의 번호로 동시 통화가 가능한 전화회의 서비스 콘퍼런스콜과 화상회의 서비스 '스마트 콘퍼런스'도 1개월 무료 제공해 원격 근무 환경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에 지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AI 스피커 '누구(NUGU)' 전용 명상 서비스 '누구 마음보기'를 제공하며, LG유플러스는 이날 자사 IPTV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활동 강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현대·기아차 “택시업계 고통 분담… 할부금 상환 유예”

현대캐피탈·자체 할부 고객 대상
100만 원 한도 수리비 30% 할인

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오토큐에 입고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일반수리비를 30% 할인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신청은 현대·기아차 전국 서비스센터, 블루핸즈, 오토큐에서 가능하다. 할

인액은 최대 100만 원 한도이며, 사고 수리와 보험 수리, 보증 연장상품 구매 건은 제외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부금 상환 유예와 일반 수리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기아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한다.

현대·기아차는 승객 감소로 매출 손실을 겪는 택시업계를 위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전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4

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할부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현대캐피탈 할부 상품을 이용하는 개인택시 고객 △현대캐피탈 할부 상품과 현대·기아차 자체 할부 상품을 이용하는 법인택시 고객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이며 현대캐피탈 할부 상품 이용 고객은 현대캐피탈 고객센터에서, 현대·기아차 자체 할부 이용 고객은 각 사 전국 지점에서 할부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는 이달 20일부

함께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환자 곁으로 향하는 의료인들의 발걸음,
달려와 방역을 서두르는 믿음직한 두 손,
감싸주고 안아주는 진심 어린 눈빛.

모두의 마음이 모이면, 곧 봄이 됩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공포에 질린 주식·채권·환율… “한미 통화스와프 절실”

전문가, 금융시장 진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주식·채권·외환시장 할 것 없이 새파랗게 질려 버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봤다. 다만 할 수 있는 방안은 공격적으로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인 과다 부채 문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터졌다고 봤다. 국내 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 가장 절실=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극단적인 현금, 그것도 달러 선호현상이 발생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리안정과 외국인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코스닥 기업 CB·BW 지원을 기업어음 안정펀드 조성 필요

한은 추가 금리인하 나서야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해소도”

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적으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A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도 “당국과 한 국은행이 내놓고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 국고채 단순매입, 회사채발행 지원 프로그램(P-CBO)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은 통화스와프 라인 체결”이라며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일부 외신에서도 미국이 한국과 브라질을 포함한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물밑 움

직임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주열 총재가 언급한 수준 이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뒤통을 남겼다. 앞서 16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한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와프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상당히 훌륭한 안전판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그 효과라든가 필요성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흔들리는 회사채시장, 취약 기업 지원하고 CP 안정펀드도 조성=채권시장이 흔들리면서 회사채시장이 취약 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막히면서 기업들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10조 원 이상의 채안펀드를 조성하고, P-CBO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상무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일단 국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문제는 코스닥 기업체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채권이다. 라임사태로 문제가 현실화했고,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제조건을 걸고서라도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채안펀드 외에도 기업어음(CP)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황세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신용스프레드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 디폴트 우려가 굉장히 증가했다. 회사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만기 90일 내지 120일물이 주류를 이루는 CP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채안펀드 외에도 CP시장 안정화펀드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미국 연준(Fed)의 CP매입 방식이 어렵다면, 민

간에서 펀드를 구성하고, 한은이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신용보강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은행인 한은에 시장개입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B증권사 채권본부장과 C생명 자산운용실장은 “호주중앙은행이 월초에 이어 오늘(19일) 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한은도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 같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만 상무는 “글로벌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일으켰다가 터져 나온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부채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특히 기업보다는 가계부채가 잠재적으로 더 큰 불안요소다. 소득과 실업 등이 부채상환 능력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신규 확진자 100명 넘어

사망자는 93명으로 늘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흐름을 보이지만 추가 사망자 증가세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신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16일 이후 사흘 새 18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어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0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52명이라고 밝혀 14일(107명) 이후 5일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섰다. 총 확진환자는 8586명으로 이중 6922명(80.8%)이 집단발생 관련 사례로 확인됐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93명(11시 기준)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9명이 늘었다.

신규 사망자는 16일 0명이었다가 17일 6명, 18일 3명을 기록하고 19일에는 9명이나 발생했다. 한동안 연일 수백 명을 기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19일 70~100명대로 주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사망자 발생 폭은 큰 것이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93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84명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한다. 이 중 70~79세, 80세 이상 사망자가 각각 36명(38.7%), 32명(34.4%)이다.

그만큼 나이가 많을수록 코로나19 사망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다. 실제 19일 추가 사망자 9명 중 8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다. 이들 모두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도중 사망했다. 사망자 추가 발생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중증 이상 환자가 91명이고, 이 중 위중 환자가 59명이기 때문이다. 실제 반대본은 고령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한 코스로 많이 진행돼 고령자의 사망 발생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위중 환자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 기관내 삽관 또는 기계 호흡을 하거나 심장과 폐를 대체하는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환자다.

문제는 최근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57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노인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고령의 중증 이상 환자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추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특별입국절차 긴 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5% 저금리로 12조 공급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발표

1억 이하 소액자금 전액 보증

정부가 19일 발표한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차 대책을 담았다. 1차로 우선 9개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5개만 발표됐고 △신용회복 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이르면 내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등급에 따라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 7~10등급에 2조7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은행은 신용도(4~6등급)를 가진 사람에게 5조8000억 원을 제공한다. 나머지 3조5000억 원은 신용도가 좋은 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3등급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한다.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평균 2.3%포인트)는 정부가 보전한다. 또 5조 500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료율도 0.8~1%로 인하한다. 3조 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해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의 경우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해 준다. 아울러 전 금융권에서 6개월간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

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 이자 상환도 같은 기간 유예한다.

이 프로그램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며 원리금 연체·차본잡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이후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원금상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고 연체채권은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 원 규모로 매입해 상환유예 및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채권·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세부 방안과 규모 등은 내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조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채시장의 안정화 및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P-CBO는 3년간 6조7000억 원 발행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기업 10곳 중 8곳

“R&D 활동 타격”

산업기술진흥협회, 1490곳 조사

절반가량 R&D 투자·채용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연구개발(R&D) 활동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절반가량은 R&D 투자와 신규 연구인력 채용을 줄일 계획으로 기업 R&D가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1~16일 연구소 보유 기업 1490개사(대·중견기업 58개, 중소·벤처기업 1432개)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한 기업 R&D 활동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R&D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의 79.8%(1189개사)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17.9%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4%였다.

응답 기업의 47.7%는 ‘올해 초와 비교해 R&D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41.3%는 ‘연구원 채용도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R&D 활동에 문제가 생긴 구체적인 사례로는 ‘국내 출장 제한 등으로 인한 R&D 활동 차질’이라는 답변이 5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경영환경 악화와 자금 부족으로 R & D 과제 중단·축소’(42.7%), ‘국외 활동 제한’(39.1%),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재료·부품 등의 공급난’(35.8%), ‘소속 연구원의 자격리·감염 등으로 연구인력 공백 발생’(26%)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에도 기업이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65.2%가 ‘출장·대면회의 축소’라고 응답했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9.7%에 달했다.

기업은 정부 R&D 사업의 경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현금 부담을 완화(72.8%), 과제기간의 한시적 연장(64.6%), 연구계획 변경 허용(4.0%) 등을 주문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밥그릇 챙기기에 與도 野도 비례당 ‘거센 역풍’

공천 주도권 극심한 진통 끝에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사퇴
민주·진보 진영서도 갈등 증폭
범여 더불어시민당 ‘친문’ 일색

비례대표 정당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찌감치 비례대표 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둔 보수 야권은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극심한 진통을 거듭한 끝에 한선교<사진> 한국당 대표가 사퇴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여기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독식을 막겠다며 연합정당 참여를 논의하던 더불어민주당까지 ‘사실상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갈피를 잡으면서 범여권의 갈등도 증폭되는 흐름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 대표는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줌도 안 되는 그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며 황 대표를 포함한 통합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간 ‘황교안-한선교 갈등’은 점입가경 양상을 보였다. 통합당이 보수통합이전인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번 총선에 대비해 영입했던 인재의 대다수가 미래한국당의 공천에서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것이 발단이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로서는 ‘밀고 맡긴’ 한선교 한국당 대표에게 발등을 찍힌 모양새가 된 것이었다. 한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 직전에는 황 대표가 직접 ‘조강수’를 예고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중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말한 ‘단호한 결단’ 표현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제2의 위성정당 창당’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비례대표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증폭되는 중이다. 범여권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19일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착수했다. 명목상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이 지지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등의 신생 정당과 함께 출범시킨 비례대표 연합정당

이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 단체 일색으로 만들어진 데다 진보진영의 핵심 정당이 배제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연합정당에는 소수정당인 녹색당, 청년정당을 표방하는 미래당 등의 참여가 거론됐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원로 등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과 친문(친문재인) 단체인 ‘시민을 위하여’ 두 단체가 연합정당의 ‘플랫폼’ 역할을 맡으면서 충돌이 생겼다. 민주당은 두 단체 간 플랫폼 통합을 원했지만 정개련은 ‘시민을 위하여’가 친문·진조국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참여 정당을 놓고도 정개련은 민중당을 저울질했지만 민주당은 ‘노선을 함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이 정개련을 배제한 채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당 안팎에서는 ‘연합정당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한국당을 ‘가짜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똑같은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납품 곤란 하청업체에 지체상금 부과 안돼”

조성욱 공정위원장 “협력사 지원 기업에 가점 부여”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자동차부품업체(원사업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이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하청업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청주 오창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화한 자동차 제조 분야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소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수급사업



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사업자가 적극 나서 달라고 독려했던 것이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 위원장은 또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 동참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에 대해 3000억 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 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비례정당만 39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9일 부산 연제구청 대회의실에서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 감독관 등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날 관내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 205곳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시험에서 비례정당 수는 39개에 달했다.

뉴스스

이제 결혼마저 안한다

작년 혼인 건수 23만9200건, 7.2% 감소… 19년 만에 최저

지난해 결혼 건수가 19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1명은 외국인과 결혼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9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전년보다 7.2%(1만8500건) 감소했다. 이는 2000년 7.9% 감소한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또 2012년 0.6% 감소한 이후 8년째 전년 대비 마이너스 추세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율도 4.7건으로 전년 대비 0.3건 감소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3.4세, 여자 30.6세로 남녀 모두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각각 올랐다. 남녀 간의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2.8세였다.

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 부부는 66.8%로 가장 많았고 여자 연상 부부는 17.5%, 동갑 부부는 15.7%였다. 남자 연상 부부와 동갑 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0.2% 포인트(P), 0.1%P 감소했지만 여자 연상 부부는 0.3%P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3600건으로 전

년 대비 4.2%(900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9%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10명 중 1명이 외국인과 결혼한 것이다. 외국 여자와 혼인 비중이 74.8%로 외국 남자와 혼인보다 훨씬 많았다.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으로 많았고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 국적은 미국, 중국, 베트남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혼인건수는 세종만 겨우 플러스를 유지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조혼인율은 세종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5.1건), 서울(5.0건) 순이었다.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제주(12.6%), 전남(11.5%), 충남(11.4%) 순으로 높았고 세종이 5.7%로 가장 낮았다.

월별 혼인은 12월이 10.4%로 가장 많았고 1월도 8.9%로 많았다. 5월은 9.6%였다. 9월이 6.6%로 가장 적었다.

한편 지난해 이혼은 11만800건으로 전년보다 2.0%(2100건) 증가했다. 이혼은 2년 연속 증가세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8.7세, 여자 45.3세였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2018년 한국가스공사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선(금상) 한 수상자의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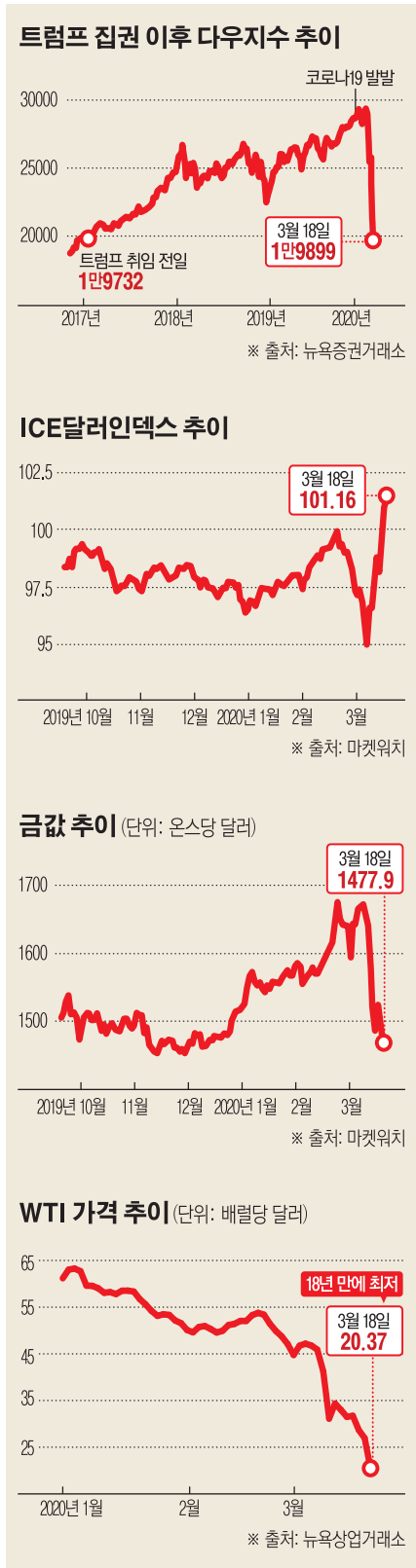
이 새싹은
나중에 울창한 숲을
만들 겁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더이상 金·美 국채도 안전자산 아니다

‘코로나 공포’에 이달초 초강세 보이던 안전자산 추락 현금화 자산 늘려… ‘ICE달러지수’ 3년 만에 최고 수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까지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현금 선호 심리가 심화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폭넓은 시장 쇠퇴에 직면한 투자자들이 매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있다. 주식과 원유 등 위험자산은 물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미 국채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번졌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18일(현지시간) 모든 자산을 매각,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금융시스템의 핵심인 단기 머니마켓에 불균형의 징후가 나오면서 대기업들도 잇따라 거액을 차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긴급 진단했다. WSJ는 투자자들의 현금 러시로 인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요동쳤으며, 이러한 혼란은 최근의 시장을 더 '새롭고 걱정스러운 유동성의 단계(a new, more troubling liquidation

phase)'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국채와 금은 안정적 '투자 도피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들 자산에는 자금이 쏠리기 마련이다. 실제로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과 미 국채는 초강세를 보였다. 금 현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1702달러까지 치솟는 등 7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자 사상 처음으로 0.5%를 뚫고 내려가기도 했다. 국채 금리가 내렸다는 것은 가격이 그만큼 폭등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장세를 이어가면서 불안이 극대화하자 안전자산의 인기도 추락했다. 자산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두 현금으로 바뀔 뻔하듯했다는

극단적인 현금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날 현금화가 쉬운 미국 국채 1개월물 금리는 장중 한때 무려 마이너스(-)0.0033%까지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의 이 같은 자산 청산과 현금화는 달러 수요 급증으로 이어져 강달러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인덱스는 2017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포인트 이상으로 치솟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자들의 현금 집착은 미국과 전 세계 머니마켓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달러 유동성을 나타내는 '테드(TED) 스프레

드'는 1%포인트를 초과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수치다. 테드 스프레드는 미국 국채 3개월물 금리와 은행 금리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은행이 단기 자금을 얼마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이 수치가 클수록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교와 공장 폐쇄 등의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을 위해 현금을 확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잉과 힐튼월드와이드홀딩스, 크래프트하인츠,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 등 대기업이 대출 한도를 허물고 거액의 차입에 나서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주 기업어음(CP)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개입해야 할 이유가 됐다.

변호선 기자 hsbun@

美 ‘뱅크런’ 조짐 ‘팬데믹’ 확산으로 10만 달러 이상 고액 인출 급증 일부 은행지점 현금부족…“은행 예치가 더 안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에서 '뱅크런(Bank Run·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국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대량의 현금 인출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은행지점이 현금 부족을 호소하는 등 뱅크런 우려가 커지면서 고액

인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아직 뱅크런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들은 WSJ에 “시애틀과 뉴욕 등 부유한 도시에서 한 번에 수만 달러 규모의 예금 인출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인출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주 한 노인 부부가 25만 달러(약 3억1000만 원)를 한 번에 인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뱅크런 우려가 커지자 트로이 스탕 노스웨스트신용조합협회 최고경영자(CEO)는 “돈을 주머니에 넣어 두는 것보다 금융 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진정할 것을 호소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이날 “1933년 이후 FDIC가 보장하는 예금 가운데 1페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지폐 대량 인출이 불러올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지적됐다. 콜로라도은행협회는 “감

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달러 지폐 1장은 약 1000회 이상 사람 손을 거쳤으며 묻어있는 세균만 3000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도 인출 요구에 대비해 고객 예금의 일부를 떼어내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에 보관하고 있다. 만일 고객이 일정 범위 이상의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 은행은 연은에 있는 자사 계좌에서 긴급 현금 이송을 주문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자료에 따르면 11일 기준 미국 은행 금고들에 보관된 현금 총 760억 달러 정도다.

김서영 기자 ojung2@

ECB, 1031兆 추가 양적완화 그리스 국채·CP도 매입한다



코로나 극복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 도입 伊·스페인 등 남유럽 적극 지원…디폴트 우려도

유럽중앙은행(ECB)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CB는 이날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7500억 유로(약 1031조 원) 규모의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CB는 긴급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올해 말까지 국채 및 기업어음(CP)을 포함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사들일 계획”이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지원을 위해 ECB의 역할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B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 국면이 끝났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국 국채의 33%까지만 매입할 수 있는 규정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라가르드(사진) ECB 총재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자산매입만 확대하는 등 소극적이었

던 태도를 불과 일주일 만에 바꾼 것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전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어음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CP 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CPFF)를 설치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CB의 이번 매입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제외됐던 그리스 국채도 포함된다.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아 경기침체 위기에 직면한 남부 유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미 부채 더미에 올라탄 국가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ECB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반대해 왔다.

또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ECB가 이탈리아 중앙은행을 통해 국채 시장에 개입, 이탈리아 정부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남부 유럽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다.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한 남부 유럽 국가들이 보건 분야 및 기업 지원, 실업자 구제 등을 위해 올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 영향이다.

김서영 기자 ojung2@



국경 폐쇄하고 병원선 배치…美 ‘전시체제’ 방불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시 체제를 방불케 하는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을 ‘전시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캐나다와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뉴욕시와 미국 서해안 지역에 해군 병원선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1950년 한국전 당시 만들어졌던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 생산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미시간주 포트휴런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니아를 연결하는 블루워터브리지에 이날 화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는, 미국 서부 해안에 배치될 해군 병원선 USNS머시.



뉴욕증시의 상징 ‘월가 객장’도 췌다운

객장내 직원 2명 양성 판정 23일부터 전자거래로 대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다음 주부터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오프라인 객장을 일시적으로 폐쇄, 모든 매매를 전자거래로 대체하기로 했다. 객장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나온 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 모회사인 인터콘티

넨털릭스체인지(ICE)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객장 내 주식 및 옵션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며 “23일부터는 전자거래로만 매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매매와 규제 감독 업무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된다.

하지만 오프라인 객장의 상징성을 감안했을 때 월가가 받는 충격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기반의 나스닥을 비롯해 대부분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오프라인 객장의 트레이더(중개인)들은 뉴욕증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점 등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도 강도 높은 방역 프로그램을 통해 월가의 오프라인 객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주 객장 내 직원 2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CNBC는 설명했다.

그동안 뉴욕증권거래소는 2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몇 차례 객장을 폐쇄한 적이 있기는 하나, 질병에 의해 문을 닫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증시가 문을 닫았던 적은 △1차 세계대전(1914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별세(1963년) △9·11 테러(2001년) △허리케인 샌디(2012년) 등 총 4번뿐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잘하고 싶다 자라고 싶다

두 가지 모두를 꿈꾼다면
한화생명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당당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작은 달라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원이 함께 하는
한화생명에서 남다른 시작을 여십시오

한화생명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체계적인 성장지원

시스템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신인FP가 전문가로 거듭나기까지, 한화생명의 지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력한 활동지원 시스템

가망고객 발굴부터 계약 후 관리까지-다양한 시장확보 지원과 모바일 활동지원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탄탄한 보상체계

활동 초기 든든한 정착지원은 기본!
더 큰 성과에는 그에 맞는 실질적 대우를 약속합니다!

한화생명 F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hanwhalife.com

본 광고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채용과는 무관합니다

음주운전·고가 외제차, 보험료 더 낸다

금융위, 車보험 제도 개선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총 10가지 부문이 바뀌었다.

먼저, 운전자 책임성 강화 부문에선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 강화가 눈에 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올려 음주운전을 막고 보험금 누수를 막는다. 이에 사고부담금을 현행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에서

사고 부담금 올려 책임성 강화

이륜차 대상 자기부담특약 도입 가벼운 법규 위반은 할증 제외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이륜차(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의무보험 자기부담금(50만 원) 특약 가입 시 전체 15%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음주와 뺑소니 사고 때 임의보험 면책규정을 도입해 일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도 완화한다.

고가 수입외제차 등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

된다.

최근 손해를 추이를 반영해 고가수리비 자동차 150% 초과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한다. 이에 현행 150% 초과 특별요율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0%를 초과하면 23% 특별 요율을 적용한다. 기존 특별요율은 15%가 최대였다.

아울러 군인 사망 시 군 복무 기간을 상실 수익액 산정 때 제외하던 것을 포함하고, 교통사고로 치아가 부러지면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적성검사 미필 등 가벼운 법규 위반 때 자동차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행과 무관하거나 가벼운 법규위반 사항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법을 개선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과 형평성도 높인다.

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고루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해 운전자 책임이 적용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관계 기관 간 정기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한다.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수시 회의를 개최해 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법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 신규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기업銀, 김성태 전무이사 임명

IBK기업은행은신임 전무이사(수석부행장)에 김성태<사진> IBK캐피탈 대표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무는 89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약 30년간 기업은행에서 근무 후, 지난해 2월부터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김 전무는 기업은행 재직 시 종합기획부장,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경동지역본부장, 경영전략그룹장(부행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은행 전반의 중장기전략,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힌다.

특히 경영전략그룹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을 발휘해 2018년 기업은행이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을 달성(연결기준 1조 7643억 원)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또 2019년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에는 IBK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을 전년 대비 20.2% 증가시키며 설립 후 최대 이익(1084억 원)을 시현했다.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자산 구조를 구축하는 등 IBK캐피탈의 성장을 이끌기도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김 전무는 재직 시절 인정받은 업무능력과 자회사 대표로 거둔 성과를 고려할 때 윤종원 은행장이 추진 중인 ‘혁신금융, 바른경영’을 통한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범근 기자 nova@



박차훈(오른쪽 두 번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8일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코로나 성금’ 11억 쾌척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와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성금 11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금에는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소속 임직원이 참여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새마을금고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이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12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 전통시장에 5000만 원 규모의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또 안전한 금융거래환경 제공을 위해 전국 영업장에 2억2000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배치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마스크도 지원했다.

이밖에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유예와 긴급자금대출 등 1000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을 시행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위임계약직도 퇴직금 줘야” KB신용정보, 6년 분쟁 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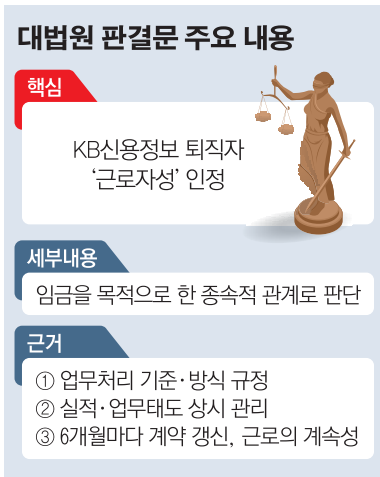
대법 “업무수행 관리·감독 등 사업장과의 종속관계 입증” 추가 퇴직금 10건도 영향

KB금융지주 계열사 KB신용정보가 6년 전부터 진행한 자사 비정규직 퇴직자와의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용정보 회사의 위임계약직 근로자들도 사업장과의 종속적 관계가 입증될 경우 사업자가 그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KB신용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10건의 퇴직금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2014년부터 시작된 KB신용정보 비정규직 임대차조사원 퇴직금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분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신용정보사에서 위임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 남게 됐다. 아직 10건의 퇴직금 소송이 진행 중인 KB신용정보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KB신용정보 퇴직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사측이 퇴직자에게 업무처리 기준과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취업규칙이 정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의 사항을 시행하고 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들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매일 정해진 시한 내에 업무내용 입력을 지시하고, 매일 지정된 날짜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그 근거로 언급했다. 또한, 위탁계약이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돼 사실상 근로 제공의 계속성



이 보장된 점도 퇴직자들의 근로자성을 입증한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신용정보사는 29개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약 1만8000명이다.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해당 업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하나의 판례이긴 하지만 분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에게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할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회사가 쌓아둔 총당금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판례로 위탁계약직들의 퇴직금 소송이 무더기로 진행되면, 그 손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KB신용정보 관계자는 “퇴직금 소송이 있을 때마다 회사가 이분들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점, 이분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만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서 소명하고 있다”면서 “퇴직금 소송으로 회사에 손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기자 contest@



‘삼성 숫자카드 V4’ 출시 소비성향 분석 맞춤형 혜택

삼성카드는 새 숫자카드 시리즈 ‘삼성카드 숫자카드 V4’를 출시했다. 삼성카드는 새 숫자카드 상품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생활비 자동납부 혜택과 디지털 관련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이 상품은 고객 소비성향 변화 분석을 통해 최근 저성장장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숫자카드 V4’에 생활비 자동납부 혜택을 추가했다.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통신비, 4대보험 등 생활비 자동납부 시 합산 금액 10만 원당 100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 주52시간 도입 등의 영향으로 여가시간에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온라인쇼핑, 배달앱 등 온라인 소비가 지속 증가한 경향을 겨냥했다. 넷플릭스와 온라인쇼핑, 배달앱 등 디지털·온라인 관련 서비스에 대해 최대 5% 할인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전시켜 숫자카드 V4에 다섯 가지 라이프 스타일로 각각 적용했다. 이전 상품인 V3에서 기존 남성과 기존 여성으로 각각 구분했던 라이프 스타일을 V4에서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합쳐서 ‘삼성카드 3 V4’로 구성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통해 숫자카드 V4에 라이프 스타일별 혜택과 생활비 자동납부 혜택,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등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한 혜택으로 숫자카드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자기자본비율, 3년 연속 15%대

“대내외 충격 상당 수준 흡수 가능”

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대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용위험이 금융 시스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의 손실흡수 여력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5%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0.16%포인트(p) 하락했지만, 3년 연속 15%대를 유지했다.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뺀 기본자본비율(Tier1)은 13.2%로 같은 기간 0.05%p 떨어졌다.

지난해 은행 순이익(14조4000억 원)이 늘고 자본확충(3조 원) 등으로 총자본이 9조5000억 원 늘었으나, 기업과 가계 대출(99조4000억 원)이 급증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78조1000억 원 불었기 때문이다.

회사별로는 신한(15.91%), KB국민(15.85%), 하나(16.12%), 우리(15.38%), 농협(15.19%) 등 주요 시중은

행이 모두 15%를 상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출범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카카오뱅크의 BIS비율은 13.48%였고, 자본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는 10.88%로 당국의 관리 대상을 간신히 피해갔다.

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BIS 비율은 13.54%로 전년 말 대비 0.64%p 떨어졌다. 우리금융이 신규 편입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신한(13.9%), KB(14.48%), 하나(13.95%), 농협(14.01%) 등이 13~14%대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사가 규제비용 대비 여력(buffer)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내외 충격이 발생해도 상당 수준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은행의 손실흡수 여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자주의 신용위험 증가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자본확충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금융위기 해법처럼 정부가 덜 걷고 더 줘 기업 구해야”

재계, 정부에 바란다

정부는 19일 50조 원 규모의 특단 금융 조치를 통해 중기·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수출 주력인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다양한 조치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큰 항공업계는 자금 규모 확대 및 지원 대상을 저비용항공사(LCC)뿐 아니라 대형항공사(FSC)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사 신용만으로는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경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 정부의 보증이 절실하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미국은 금융지원, 세제 감면 등 항공업계에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독일과 프랑스 역시 무한대·무조건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정유업계는 석유류 수요 급감에 따라 원유 관세에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산유국 중 유일하게 원유에 3%의 수입관세를 붙이고 있다. 이 밖에 석유수입부과금 인하와 주요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대기업 규제 완화 목소리 항공, 회사채에 정부 보증 절실 ‘정유 관세’ ‘통신 보조금’ 풀어야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종은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해 정부에서 예외 신청을 하면 조건별로 따져서 해준다고 하는데, 신청하고 기다리는 데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연구 개발에 매진

해 초격차를 구현해야 하는데 탄력근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통신 업계에선 스마트폰 판매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방통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 역시 법인세 인하와 속도 있는 자금 지원,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신산업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을 비롯해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

2008년 비상경제 정부 법인세 내리고 자율 구조조정 기간산업 중심 과감한 자금투입

프 확대, 국민연금·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대안으로 내놔다.

대한상의 역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 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서비스산업 피해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을 요구했다.

1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내놔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휘몰아친 당시 해외 및 국내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고 수출과 생산이 급격히 위축되자, 정부는 ‘비상경제 정부’를 가동해 법인세를 내리는 등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크고 수천여 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린 자동차·조선·해운산업 등 주요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육성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시장형’ 방식을 병행했다. 해운산업을 위해 공공기관·민간투자자·금융권이 공동으로 4조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 건조 중인 선박에는 4조7000억 원을 대출해줬다.

또 공공과잉 문제에 직면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지원금액을 기존(4조7000억 원) 대비 약 2배(9조5000억 원)로 확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온갖 규제와 진노동 정책 등으로 ‘위기 때 투자’를 단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하유미 기자 jscs508@

정의선의 ‘모빌리티 전환’ 탄력 받는다

현대차 주총서 사업목적 변경 개인 비행체·로봇 사업 확대 “원가구조 혁신해 수익성 향상”

美 공장 코로나 확진 생산 중단 체코·슬로바키아 2주 가동중지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미래차 전략’이 주주의 지지를 얻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불거진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수익성 중심의 긴축재정’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대차는 19일 서울 양재동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을 기존 ‘각종 차량과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에서 ‘각종 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동차·차량 등 각종 차량 총천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도 새로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현대자동차가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주총장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마스크 미착용 주주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했다. 또 주총장 좌석을 2~3칸씩 비워 최소 1m 이상 간격을 확보했다. 사진제공 현대차

이날 주총은 이원희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과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로 열렸다. 코로나19로 800여 석 규모의 행사장에는 간격을 두고 약 140명의 주주가 자리 잡았다. 주총에서는 제52기 재무제표 승인 건을 포함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이사선

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최은수)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상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최은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모두 승인했다.

정관 변경은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2대 사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현대차의 중장기 계획

‘2025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체 사업의 50%는 자동차를 유지하되 나머지 30%와 20%는 각각 개인용 비행체(PAV)와 로봇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주주의 지지를 얻은 만큼,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원가절감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사장은 “재료비와 투자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원가 구조를 혁신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긴축재정’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1명) 발생으로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이 18일(현지시간) 가동을 멈춘 가운데, 이곳에서 엔진을 공급받는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도 생산을 중단했다. 가동 재개 시점은 현지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현대차 체코 공장도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도 부품수급 문제로 인해 23일부터 2주간 가동이 중단된다.

현대·기아차 공장이 가동을 멈춤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등 현지에 함께 진출한 협력사, 부품사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코오롱인더스트리 임단협 화상 조인식에서 김연상 노조위원장(왼쪽부터)과 장희구 대표이사, 김성중 구미공장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임단협 ‘무교섭 타결’ 화상 조인식

코오롱인더스트리 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8일 화상회의를 통해 장희구 대표이사, 김연상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

노사 대표가 이날 12일 구미공장에서 상견례를 하고 신속하게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만든 뒤 16일과 17일 양일간 3회 협상반대표를 통해 18일 최종적으로 타결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매년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약 10억 원 규모의 창립기념일 선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해 지급하기로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요 사업장이 구미, 경산, 김천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급된 상품권 일부를 기증받아 지역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장희구 대표는 “코오롱인더스트리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의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줄서지 마세요”…삼성, 갤럭시Z플립 톰브라운 추천 판매

23·24일 홈페이지서 접수

삼성전자가 완판된 ‘갤럭시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사진) 추가 판매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9일 삼성닷컴을 통해 “갤럭시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추가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판매는 온라인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가 판매 기간 내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고객 중 추천을 통해 당첨자 선정한다. 응모 기간 23일 9시



부터 24일 21시까지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만 응모하면

된다. 1인 1회 응모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응모 시 불법 프로그램이나 비정상적 방법을 사용해 삼성전자와 다른 고객의 피해 발생이 확인될 경우, 당첨 취소뿐 아니라 해당 페이지 접속 제한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는 25일 오후 6시에 당첨자에 한해 문자(MMS)를 발송할 예정이다. 당첨 여부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제품 구매 기간은 25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후 9시까지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갤럭시Z플립 톰브

라운 에디션 판매는 시작 2시간여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삼성닷컴 홈페이지는 판매 시작 전부터 접속자가 증가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갤럭시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은 새로운 폼팩터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에 톰브라운의 시그니처 색상과 삼색 패턴 등 절제된 스타일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UX)이 적용된 제품이다. 가격은 297만 원이다. 톰브라운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적용된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함께 제공된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전자 부회장〉

올 4번째 현장 찾은 이재용 “잠시도 멈추면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도전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방문
반도체 EUV 라인·스마트폰 이어
차세대 QD 디스플레이 전략 점검
코로나 위기극복 미래 사업 독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살펴보고 임직원들에게 ‘흔들림 없는 도전’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예상치 못한 변수로 힘들겠지만 잠시도 멈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19일 이 부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찾아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진오 디스플레이연구소장, 신재호 경영지원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힘들겠지만 잠시도 멈추면 안 된다. 신중하되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넘어서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흔

들림 없이 도전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삼성은 경쟁 심화로 인한 공급과잉 및 패널가격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차세대 QD(퀀텀닷) 디스플레이 사업화로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QD 디스플레이는 빛이나 전류를 받으면 빛을 내는 초미세 반도체 입자인 QD(퀀텀닷·양자점 물질)를 이용해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색을 구현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유연해 폴더블 등 디자인 혁신도 가능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이 부회장이 아산사업장을 찾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당장의 위기 극복과 병행해 기업 본연의 임무인 미래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올 들어 활발한 현장경영 행보를 보이며 임직원들에게 ‘미래’와 ‘도전’을 역설하고 있다. 1월 새해 첫 현장 경영으로 화성사업장 내에 있는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공정기술을 보고받고 DS부문 사장단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 그는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며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2월에는 화성사업장을 찾아 EUV(극자외선) 전용 반도체 생산라인을 직접 살펴봤다. 이 부회장이 방문한 ‘V1 라인’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래를 이끌 첫 EUV(극자외선) 전용 라인이다. 최근 본격적으로 7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차세대 파운드리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긴 여정의 첫 단추를 꿰었다. 이곳에서 만드는 작은 반도체에 인류사회 공헌이라는 꿈이 담길 수 있도록 도전을 멈추지 말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달 들어서는 경북 구미사업장에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점검한 뒤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어려움을 청취하고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졌다. 열을 뒤에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또는 재택근무 중인 임직원들에게 감염 예방용품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응원하자”고 당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정몽원 만도 회장, 노조 만나 구조조정 설득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의 정몽원(사진) 회장이 직접 노동조합을 만나 희망퇴직과 일부 사업 매각 등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만도는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글로벌 R&D 센터에서 노사 간담회를 열어 생산직 희망퇴직 등 최근의 회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몽원 대표이사 회장이 직접 참석해 노조에 이해를 구했다.

만도는 지난해 관리직원 구조조정에 이어 이달에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하겠다고 노조에 유휴인력 해소안을 전달했다. 약 2000명에 달하는 생산직으로부터 먼저 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고, 이후 유휴인력이 발생하면 순환 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국내의 생산량이 줄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부품이 전기·전자식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식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기존 기계식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보다 적어 노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강원 원주시 주물공장과 관련 사업을 매각하고 외주화하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은 만도가 2008년 한라그룹에 인수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BMW, 모빌리티에 42조원 투자 선언

BMW i4 콘셉트 앞에서 ‘2019년 실적 및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BMW는 2025년까지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에 300억 유로(약 41조58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2023년까지 총 25종의 전기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올리버 집세(Oliver Zipse) BMW 그룹 회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본사에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BMW i4 콘셉트 앞에서 ‘2019년 실적 및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BMW는 2025년까지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에 300억 유로(약 41조58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2023년까지 총 25종의 전기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BMW

아시아나, 이란 재외국민 수송

아시아나항공이 이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해 전세 항공편을 띄웠다.

해당 전세기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로 들어가 이란에서 이동해온 재외국민 80명을 태워 무사히 귀국했다. 수송 전세기는 19일 오전 2시 45분(현지시간) 두바이를 출발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전세기는 수송을 위해 17일 밤 11시 50분 승객 없이 이륙하는 ‘페리 운항’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8일(현지시간) 오전 4시 51분 두바이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37km 떨어져 있는 알막툼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 재외국민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좌석을 분산 배치해 앉았다. 아울러 동승하는 캐빈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방호복 및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기내 서비스도 최소화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Hansol
한솔홈데코

우리집엔 어떤 스타일의 마루가 어울릴까요?

마루는 우드패턴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SB마루를 만나보세요.
우드패턴은 물론 대리석 패턴, 헤링본 시공도 가능하며,
에스비 강, 에스비 엠보까지 다양한 마루로 인테리어 스타일을 빛나게 합니다.

실용성에 스타일까지 갖춘 강마루 - 한솔 SB마루



한솔 sb마루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마루
대리석 / 우드 / 헤링본 / 에스비 강 / 에스비 엠보



습기에 강한 실용마루
장시간 습기에 노출시에도 차수 변화 및 팽창에 안정적



친환경 소재의 건강마루
아토피인증, 항곰팡이 인증 획득

※제품별 친환경 SB 전용 접착제 사용(황토, 프리미엄)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이 있기에 내일은 희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희망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몸을 아끼지 않는 의료인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119 구급대원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서로를 위해 예방수칙을 지키고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국민은 어려운 시기에 항상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내일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다시 모두를 웃게 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국민의 희망 행렬에
함께하겠습니다



SK텔레콤 ‘5GX 산업용 드론’ 사업 선도한다

SK텔레콤이 5G 통신 드론 사업에 나선다.

SK텔레콤은 보안기업인 ADT캡스,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 선도기업인 이노텍과 함께 ‘5GX 드론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3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시간 영상통화로 진행된 협약식에서 SK텔레콤 박진호 보안사업부장(ADT캡스 대표 겸임)과 김운 CTO(AIX센터장 겸임), 이노텍 이성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적극적 협력을 통해 5G 드론 시장 선도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이끌어 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3사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유망 사업인 드론에 5G통신망을 연결, 기존에 없던 혁신적 드론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 추진됐다. 5G 기반 산업용 드론 서비스는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통신망 연결 지역에선 초고화질 영상(4K)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출동 △공공 인프라·산업단지 등 시설물 대상 모니터링 및 점검 및 보안 △

ADT캡스·이노텍과 사업 협력
산업용 드론에 5G 통신망 연결
여러 대 드론 동시에 운영 가능
4K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

대기 환경 측정 및 3D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기존 서비스 대비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정확도와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사는 산업용 드론 서비스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공공 안전과 재난, 산업시설 보안, 실시간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공과 민수 등 시장 공략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5G 기반 통신과 드론, AI 기반 영상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솔루션도 공동 개발해 해외시장 본격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산업용 드론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 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자사가 보유한 다양한 앞선 기술들을 결합해 혁신적 통신



박진호(왼쪽 두 번째) SKT 보안사업부장(ADT캡스 대표 겸임)과 김운(오른쪽 두 번째) CTO, 이성진(영상 속 앞줄 가운데) 이노텍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망 기반 드론 서비스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먼저 SK텔레콤은 기존 5GX 드론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드론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영상 송·수신을 위해 5G 등 통신망 기반의 저지연 영상전송 기술인 ‘SRT’와 지능형 영상 분석 엔진인 ‘VA’ 기술을 제공한다. 이노텍은 SK텔레콤이

개발한 ‘SRT’와 ‘VA’ 기술을 시스템화하고, 5GX 드론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영상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며 향후 상용화 시 서비스의 유지·보수 등 사업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ADT캡스는 5GX드론과 ADT캡스의 통합 관제 플랫폼 및 출동 인프라를 확

용, 보안 및 제류사업 서비스의 공동 기획과 컨설팅, 구축,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맡는다.

SK텔레콤과 ADT캡스, 이노텍은 우선 LTE 등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드론 솔루션을 연내 출시한 후 드론용 5G 모뎀의 출시 및 5G망의 확대 등의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호 ADT캡스 대표 겸 SK텔레콤 보안사업부장은 “드론 사업이 성공하려면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업들의 협력이 필수”라며 “3사의 보유 역량을 결집해 국내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운 SK텔레콤 CTO는 “드론은 5G·AI 등 ICT 시너지를 통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드론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5G와 드론, AI 기반 지능형 영상 분석의 융복합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이노텍 대표는 “국내외에서 드론 기반의 신규 보안 시장이 빠른 속도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은 국내의 산업용 드론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김정환 이사장 “산업단지 대개조, 혁신 전진기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취임식 화상으로 대체하고 구미산단 찾아 방역현장 점검
“스마트산단 조기 조성·산업생태계 고도화 최선 다할 것”

한국산업단지공단 제11대 이사장에 김정환<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취임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일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데 이어 산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대체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식 직후 곧바로 구미국가산업단지 방역도움센터를 방문, 입주업체의 방역을 지원하는 현장을 살피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글로벌 저성장과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산업단지와 산업공의 새로운 변신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단지는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하며, 산업공은 기업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산업진흥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해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산단공은 △산업단지 대개조 적극 추진 △제조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산업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핵심기관이 될 것임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다양한 혁신 주체의 협업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산업단지를 혁신창출의 선도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산단공이 산업진흥정책의 서포터 역할 수행하는 동시에 산업진흥과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응하고 제조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이끌어 내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 간 공동 혁신활동 지원



을 통해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과 지원 서비스를 공동 설계·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업 현장 최전선에 있는 산단공의 강점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공 파트너이자 애로 해결사로서의 고유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산단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 귀여 있는 조직, 협력해 시너지를 내는 조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렴한 조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통·협력·청렴의 조직문화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

도록 방역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산단공이 산업단지 전문기관으로서의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위산일계의 자세로 혁신과 변화의 길을 탄탄하고 차근차근 쌓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를 마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장,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대변인 등을 거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리더십과 조정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로봇, 조선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스마트화 추진 등 뛰어난 기획능력을 보여준 산업정책 전반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영희 기자 che@

중기부,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10~50% 감면

3개월간 2528개 스타트업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다.

19일 중기부는 전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시작한 임대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일정 기간 덜 받는 것을 뜻한다. 중기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창업인프라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가 2528개 입주기업에 10~50%의 임대료를 3월부터 평균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전북, 강원, 제주 등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들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고통을 함께해자는 차원이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 인프라 시설이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해 설립·지정된다. 입주 요건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며 입주 기간은 3년이다. 이달 기준 전국 259개 창업보육센터에 6270여 개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번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약 40%의 입주기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참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단위: 곳, 2020년 3월 기준)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여한 창업보육센터들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많은 창업보육센터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들 창업보육센터들에1는 추후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녹물 콧물, 노후 수도관 무료로 청소해 드려요”

수도119, 배관 점검 서비스

올케어 수도난방배관케어 전문 브랜드 ‘수도119’는 노후 배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한 ‘대한민국 수도관 무료점검(청소) 캠페인’을 이달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도119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수도관 중 32.4%인 6만7676km가 21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이다. 노후 배관으로 인한 불순물, 녹물, 잔류염소 등이 함유된 물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 트러블 등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119는 배관 토털 케어시스템 PTCS 119(Plumbing Total Care System)로 수도관 청소를 통해 깨끗한 수질 환경을 조성하고, 난방관 청소로 배관에 들러붙은 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난방 효율을 향상시켜 난방비 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깨끗한 공기질 환경까지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수도119 캠페인 초기 신청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9.2%가 ‘수도관 청소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6%가 ‘샤워기, 세면대 등 정수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수도관 케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관무료청소 한 체험자는 “캠페인 무료청소를 통해 세면대에서 녹물이 나오며 청소가 되는 모습을 보며 보이지 않는 수도관도 청소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호식 수도119 대표는 “‘수도관 무료점검(청소) 캠페인’ 추진을 통해 노후된 수도난방 배관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도난방배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리의 생활화를 널리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도관 무료청소 캠페인은 수도119 공식블로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4월에는 자체 수도119 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우람 기자 hura@

日 롯데까지 품은 신동빈… ‘지배구조 개편’ 급물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선임
형제간 경영권 분쟁 마침표

호텔롯데 상장 가속화

롯데On 출범 등 시너지 기대

마침내 ‘하나의 롯데’가 완성됐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18일 오후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신 회장은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거머쥐며,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벌여온 경영권 분쟁도 6년여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신 회장은 내달 1일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며 이번 회장 선임으로 2년여 만에 일본 롯데홀딩스에 복귀하게 됐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격호 회장, 신동빈 부회장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신격호 회장이 201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회장직은 공석으로 유지돼왔다. 신 회장은 부회장직을 수행해오던 중 2018년 2월 실형을 선고받으며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하면서 한일 롯데의 교류 강화는 물론 호텔롯데 상장, ‘롯데On’ 론칭 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 롯데와 호텔롯데의 상

롯데그룹 주요 투자 계획 (단위: 원)		
시기	계획	예산 투자액
2020년 4월	통합온라인몰 출범	3조
2021년	울산 석유화학단지 증설	7000억
2021년	현대캐미칼 합작 대산 화학공장 건설(지분 40%)	2조7000억
2022년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3125억
2022년	글로벌로지스 충북진천 메가 허브 터미널	3000억
2023년	베트남 하노이 하노이몰 건설	3300억
2023년	인도네시아 화학단지 건설	5조
2023년	GS 합작 여수 신규 화학공장 건설(지분 51%)	8000억
2024년	베트남 호찌민 에코스마시티 건설	2조

장 등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데제과의 상장과 호텔사업 확대도 예상된다. 니혼게이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2년 3월 일본 롯데제과의 상장을 마무리짓고 한국의 호텔 사업을 일본에서도 전개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앞서 이달 초 니혼게이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중심이었던 호텔 사업은 세계로 확대한다”며 “6월 미국 시애틀에 고급 호텔을 열 계획이고 3~4년에 걸쳐 영국, 도쿄 등에서 적극적으로 호텔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이 한일 양국 롯데의 경영권을 확보하며 그동안 수차례 연기됐던 호텔롯데의 상장은 한층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 오름에 따라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며 “한일 롯데 모두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된 롯데그룹 계열사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On’도 내달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통합 온라인몰은 신 회장이 가장 공들여온 사업으로 꼽힌다. 롯데On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롯데닷컴, 하이마트, 롯데슈퍼, 톱스 등 7개 계열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로 2018년부터 3조 원을 투자했다.

롯데On은 당초 이달 말 출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내달로 출범을 연기했다. 롯데온은 7개 계열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온라인몰 상품을 통합해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앱으로 사용자 편의성

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롯데는 롯데On 출범 후 2023년까지 온라인 취급액을 20조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통업계 라이벌인 신세계 측(SSG)닷컴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이커머스 1위인 쿠팡의 야성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재계에서도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취임이 일본 롯데 경영진의 신뢰를 재차 확인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 롯데의 경영을 책임지는 원리더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긍정 평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으로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 롯데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호텔롯데의 상장과 통합 온라인몰 출범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일본 사업도 속도감 있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현 기자 yhh1209@

호텔食도 ‘드라이브 스루’

롯데호텔서울 다이닝 박스 출시

롯데호텔서울이 업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다이닝 박스를 선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호텔을 찾는 소비자가 줄면서 호텔업계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식음업장 운영 시간을 줄이고, 투고 박스(To-Go Box),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줄어든 손님을 매우기 위해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롯데호텔서울에서 최소한의 접촉으로 호텔 메뉴를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롯데호텔서울의 일식당 모모야마와 베이커리 델리카한스는 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후 결제 완료 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픽업할 수 있는 ‘시그니처 박스’를 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선보인다.

예약 및 구매는 픽업 시간과 사전 예약 시간에 맞춰 유선 또는 롯데호텔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모모야마의 드라이브 스루 다이닝 박스는 픽업 최소 2시간 전, 델리카한스의 시그니처 셀렉트는 픽업 4시간 전까지 예약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로 픽업 시간을 설정하면 된다. 박미선 기자 only@

GS25 ‘해군PX’ 편의점 운영권 지켰다

5년간 227곳 위탁 사업자 선정… 육군PX 입찰전 유리한 고지 확보

편의점 1위 기업 GS25가 기존에 운영하던 해군PX 편의점 227개 수성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17년 만에 올라선 업계 선두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국군복지단의 해군PX 위탁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대상 점포는 전국 227개 해군마트로, 운영 방식에 따라 부대위탁(169개), 민간직영(52개), 스낵코너(6)다.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해군PX를 운영해 왔다. 이번 낙찰로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권을 보장받게 됐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해군PX 운영 사업자 낙찰로 지난 1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점포 수 1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연하기보다는 입찰 대상 사업이 당사 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내실 경영 관점에서 판단한 후 긴 호흡을 가지고 신중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군PX는 한 번에 점포 227개를 확

보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치열한 눈치 경쟁이 예상됐다. 육군PX 민영화가 거론되는 가운데 해군마트 운영 경험은 향후 육군마트 입찰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

국군복지단도 신청 자격을 전국 단위 2000개소 이상 운영, 연간 매출액 4000억 이상인 업체로 제한해 편의점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열어놨다.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뿐이다.

하지만 정작 입찰에 나선 곳은 GS25와 CU 두 회사뿐으로 상대적으로 흥행이 저조했다는 평가다. 업체들의 관심이 떨어진 이유로는 일반 점포에 비해 떨어지는 수익성이 꼽힌다. 게다가 산간, 도서(섬)에도 위치해 물류비와 시설투자비가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선두 경쟁이 치열한 GS25와 CU를 빼놓곤 관심 밖이란 설명이다.

예상대로 기존 사업자인 GS25 외에 점포수 2위로 밀려난 CU가 입찰에 참여했다. CU는 선두 자리에서 내려온 직후인 1월 서울교통공사의 ‘7호선 수락

산역, 상도역 등 40개소에 편의점 브랜드’ 입찰에 나서지 않아 1위 경쟁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당시 CU가 40개 점포를 한 번에 차지하게 되면 향후 1위 재탈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GS25와 CU의 점포 수는 각각 1만3899개, 1만3820개로 79개 차이다.

하지만 지하철 점포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해군PX 응찰에 나서면서 선두 재탈환 의지를 드러냈다.

두 회사의 눈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양 사는 지난해 11월 GS25가 선두를 차지한 후 매달 발표해오던 점포수를 돌연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후부터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만 점포수를 알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CU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신입·수시 채용을 확대하며 사업 확장에 강력 드라이브를 건다. 롯데쇼핑이 200개 점포를 폐점하고, 다른 유통사들도 채용 규모 축소가 관측되는 가운데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남주현 기자 jooh@



신세계백 ‘봄꽃으로 오감만족’

신세계백화점이 20일부터 3일간 점포에서 꽃화분을 나눠주고 봄을 알리는 ‘오감만족’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70% 가까이 매출이 급감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경기 김포, 성남 등 화훼농가에서 1만 개의 화분을 매입했다. 행사 기간 신세계백화점 제휴카드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은 행사장에서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BGF리테일 ‘신입 공채’ 예년 수준 선발

AI 인적성 도입… 고용정책 발맞춰 경력 수시채용 확대

BGF리테일은 올해 코로나19의 악재 속에서도 신입사원 공채를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및 경력사원 수시 채용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취업준비생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정부의 고용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채용연계형 인턴십도 영업관리 직군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하고 경력사원에 대한 수시 채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먼저 23일부터 상반기 신입 공채를 실시한다.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전역(예정) 장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BGF리테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캠퍼스 리크루팅 등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생략하는 대신,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CU 공식 SNS 등 온라인으로 채용 정보를 전달한



다. 채용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채용 과정을 소개하고 FAQ 내용도 더욱 강화한다.

또한, AI(인공지능) 면접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인적성 검사를 시행한다. AI 인적성 검사는 전형 기간 내 지원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웹캠이 설치된 PC나 노트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남주현 기자 jooh@

여성 애슬레저 라인 ‘힐라 스튜디오’ 론칭

스포츠 브랜드 힐라(FILA)가 애슬레저 시장에 진출한다.

힐라는 여성 특화 애슬레저 라인인 ‘힐라 스튜디오(FILA STUDIO·사진)’를 론칭했다고 19일 밝혔다. 힐라 스튜디오는 힐라 여성 퍼포먼스 라인인 FILA FIT을 새롭게 단장해 탄생했고, 운동하는 여성을 넘어 일상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편안한 애슬레저 룩을 표방한다. 힐라 스튜디오는 레깅스, 재킷, 스웨트셔츠, 이너탑, 팬츠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힐라 스튜디오의 대표 격인 ‘테일 시리즈’는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경량 재킷을 비롯해 브라톱, 5부 레깅스로 구성됐으며 힐라 로고 테이핑을 가미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힐라 관계자는 “편안한 착용감과 기능은 기본, 운동 전후 땀이 있게 착용할 수 있는 힐라 스튜디오는 운동을 부르는 예쁜 운동복으로 신체적, 심리적 운동 효과를 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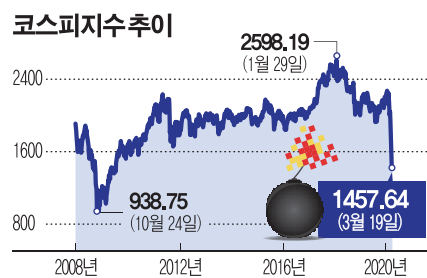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힐라 스튜디오와 함께 땀이 있게 운동하며, 심신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신용거래 댓’ 반대매매 시한폭탄 터졌다

9일부터 담보비율 미달 계좌 급증
“개미 버틸 수 없는 상황 이르러”
19일 코스닥서 1722억 순매도

유례없는 폭락장 속에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좁히는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반대매매 물량이 다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722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대거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에 압력을 더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용거래 계좌에서 증거금을 맞추지 못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신용

융자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된 계좌 수가 급증했고, 추가 담보를 제공해도 계속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커진 계좌가 늘었다”며 “신용대출 비율을 줄인 계좌는 버텼지만, 매도 상환하지 않았던 계좌는 반대매매를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대매매 금액 역시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45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7일 반대매매 금액은 249억6400만 원을 기록해 최근 10년 이래 최대 규모를 경신하기도 했다.

반대매매 규모는 13일(218억 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 4거래일간 합산된 금액만 905억1700만 원에 달한다.

미수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파는 후 대금을 갚는 단기융자를 뜻한다.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 반대매매다. 최악의 경우, 보유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강통 계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총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향후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

면서 신용거래 사용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기준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8조1417억 원으로 줄었다. 17일부터 8조 원대로 줄어 2거래일 연속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 신용거래 투자자는 단기間に 주가가 오를 것이라 기대감이 낮아보니 신용잔고를 상환하거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매도상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 매수 대신 대기자금으로 돌리거나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정희 기자 jih@

실적 부진 금호산업, 高배당 유지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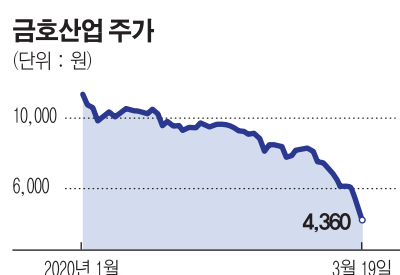
지금난에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한 금호산업이 실적 부진에도 기존 배당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다. 반면 올해도 직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부 반발은 커지는 상황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5월 보통주 500원, 우선주 550원으로 총 176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 각각 4.3%, 1.5% 수준이다.

금호산업의 배당은 3년째, 문제는 재원 확보다. 2017년 당시 금호산업은 당기 순이익 953억 원을 기록했고 그중 18.6%에 해당하는 177억 원을 배당했다.

2018년에는 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같은 배당액을 유지했고 지난해의 경우도 당기순이익은 88억 원에 그쳤지만 배당액을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배당성향이 무려 202%에 달한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높은 배당성향이 결국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금호산



올해도 직원 성과급 없이
총 176억 규모 배당 추진
“오너家 잇속 챙기기” 불만

업은 금호고속이 지분 45.3%를 가지고 있고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0.03%, 소액주주가 42.9% 등을 가지고 있다.

박삼구 회장이 직접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은 1만 주로 배당액은 5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82억 원에 이른다. 박 회장이 금호고속의 지분 31.1%를 가지고 있고 총수일가까지 합치면 70%가 넘는 만큼 금호산업의 배당 상당수가 총수일가에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고배당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수년째 지급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호산업 직원은 “희생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배당액으로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며 “연이은 M&A와 구조조정 등으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져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어 직원들의 불만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상장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면서 “대주주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많은 소액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19일 증시에서 금호산업은 17.74%(940원) 하락한 4360원으로 신저가를 또다시 갱신했다. 최근 폭락장을 감안하더라도 올 들어서만 주가가 62.08% 하락하며 시가총액도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주담대 반대매매 우려? 담보 58만株 추가 제공

양홍석<사진> 대신증권 사장이 대출과 관련해 담보 주식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 급락으로 담보비율이 하락하자 반대매매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담보 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신증권 주가의 최저치 경신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추가 향방에 따른 담보 물량의 추가 제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양 사장은 13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주식 58만 주를 추가 제공했다. 이에 따라 보유주식 대비 담보 제공 비율은 종전 45.7%에서 11.5% 포인트 늘어난 57.2%가 됐다. 보유주식 436만8818주(지분율 8.60%)의 절반 이상이 담보로 잡혔다는 의미다.

양 사장이 주식담보 대출을 최초로 받은 것은 2009년이다. 6월 50만5000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고 4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듬해 5월에는 60만 주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고 50억 원을 더 차입했다. 이후 대출 계약을 갱신해 온 양 사장은 2018년 4억 원을 갚아 대출금은 90억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3월 30억 원을 더 대출받



아 총대출금은 120억 원이 됐다. 이 과정에서 최초 50만5000주였던 담보 제공 주식은 250만 주가 됐다.

양 사장이 주식담보 대출로 120억 원의 거액을 차입한 것은 낮은 보유 지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최대주주인 양 사장을 비롯해 대신증권 오너 일가는 지분율이 낮아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다. 이에 양 사장 외에 모친인 이여룡 회장과 동생 양정연 씨도 주식담보 대출로 자사주를 사들였다. 이들은 또 차입금 외에 자사주 상여는 물론 배당금과 임원 보수 역시 자사주 매입에 쏟아부으며 지분 확보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양 사장 8.6%를 비롯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13.2%로 늘었다.

양 사장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자사주 매입에 확인된 것만 92억 여 원을 사용해 총대출금 120억 원을 거의 활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www.douzo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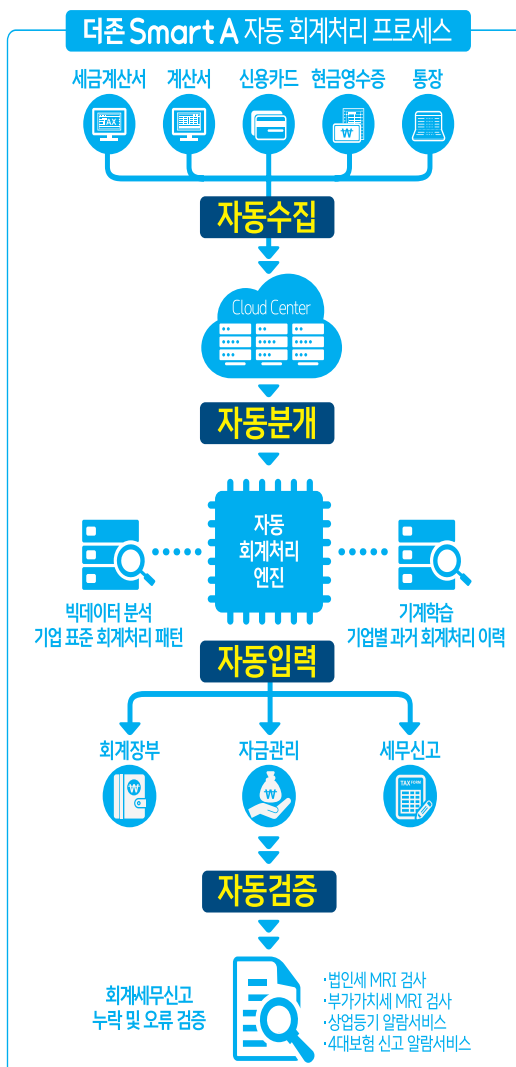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시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급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실적 부진에 부채 늘고 자본 줄어

상장사 재무 분석

한국전력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부채비율도 최근 몇 년 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59조1729억 원이다. 영업손실은 1조2765억 원, 당기순손실은 2조 2635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513.7%, 92.7% 늘었다.

한전의 순이익은 2015년 13조4164억 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상태다.

몇 년간의 부진 속에 부채비율은 오르고 있다. 2016년 143.44%까지 떨어졌지만 이듬해 149.15%, 2018년 160.57%를 지나 지난해 186.83%까지 올랐다.

부채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자본은 감소한 탓이다. 한전의 부채는 2016년 약 105조 원에서 지난해 129조 원으로 불어났다. 다만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비유동부채

한전 재무손익 추이
(단위: 십억 원, %)

	2017년	2018년	2019년
영업이익	4953	-208	-1277
당기순이익	1441	-1174	-2264
부채비율	149.15	160.57	186.83
순차입금비율	71.78	83.94	95.9

※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

작년 매출 59兆 2.4% 감소 부채비율 186%까지 올라

가 부채의 상당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 만기 1년 이내의 유동부채가 그 규모를 더 줄여가는 추세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전체 부채에서 장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6.39%에서 지난해 81.17%로 늘었다. 반면 자본은 72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떨어졌다. 자본이 70조 원을 밑도는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익잉여금이 조금씩 감소한 영향이 컸다. 고대영 기자 kodae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코로나19에 ‘집콕族’ 늘어 온라인 상거래·게임株 선방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최악의 폭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상거래·게임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다. 사회 전반에 ‘언택트(비접촉)’ 문화가 확산하면서 바뀐 생활양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효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도 이들 종목에 대한 목표주가를 올려 잡았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 라인 상거래, 게임 관련 종목은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하락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다.

온라인 상거래 사업을 운영하는 NHN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는 올해 들어 각각 5%, -19.9%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도 0.4%, -2% 수준을 유지하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32.66%), 코스닥 시장(-36.71%) 수익률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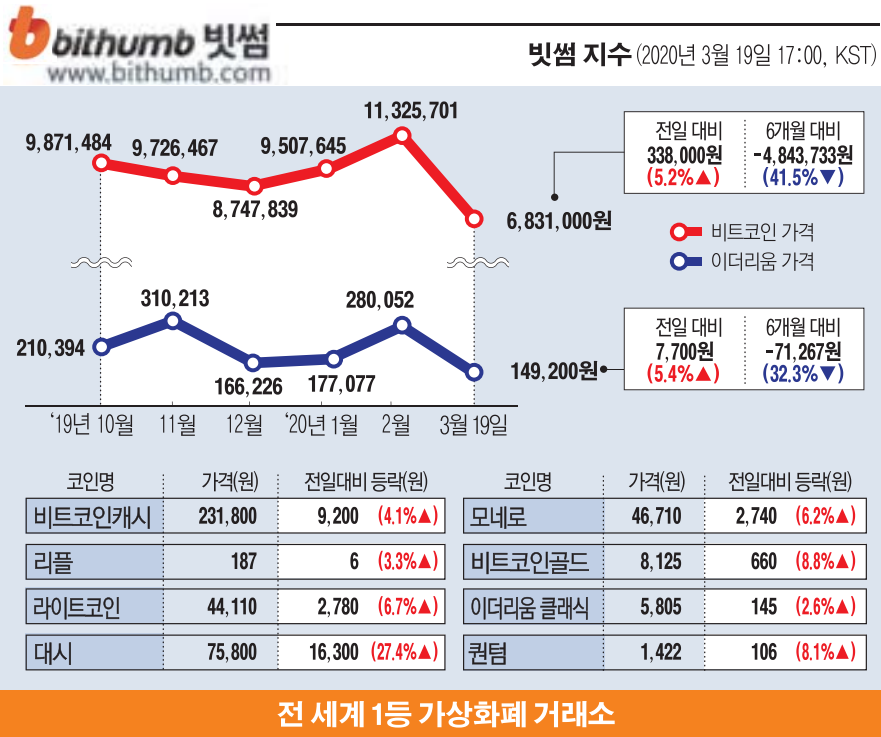
일부 증권사도 이들에 대한 목표주가를 올려 잡았다. NHN한국사이버 결제는 올해 총 7개의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 중 3곳은 연이은 하락세가 이

어진 이달 중순에 상향 리포트를 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도 비슷한 시기 신작 모델이 기대된다는 취지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각각 2곳, 1곳에서 나왔다. 3월 들어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상향한 종목은 총 28곳에 불과했다.

전자결제주는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성장 지속성에 대해 고평가받았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한번 변하기 시작한 소비 행태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PG사업자는 판매처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신용카드·계좌이체·핸드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면서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NHN한국사이버결제의 매출 비중에서 PG수수료는 80%가 넘어간다. KG이니시스 역시 PG 전체 시장 중 약 20%가량을 차지한다.

게임주 선방은 ‘집콕’ 문화 확산에 따른 콘텐츠 소비 확대 기대감이 주효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Sensor Tower)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40억 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서울 노후 우체국, 행복주택·오피스로 ‘탈바꿈’

SH공사, 청량리우체국 등 3곳에 복합 개발 사업 추진
건물 저층 우체국·고층 행복주택... 늦어도 연말 첫 삽
우정사업본부, 수요감소 속 수익다변화 경영개선 기대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시지에 밀리는 듯 하던 우체국이 화려한 변신을 노리고 있다.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노후 우체국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우체국을 재건축하면서 주거·상업 기능을 함께 넣는 프로젝트다.

SH공사는 지은 지 30년이 넘는 서울 시내 노후 우체국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세 곳을 후보로 추렸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우체국과 강서구 화곡4동우체국, 관악구 신림동우체국 등이다. SH공사는 노후 우체국은 아니지만 강서구 마곡지구 우체국 부지에서도 우정사업본부와의 부지 교환 방식을 통해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H공사는 이들 우체국을 재건축해 신혼부부나 청년,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SH공사의 부동산 투자 자

회사인 서울리츠가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 부지를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국토부, 서울시 등의 지원을 받아 건물 저층부엔 우체국을, 고층부엔 행복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SH공사는 사업 후보지 세 곳을 모두 복합 개발하면 행복주택 234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종 사업 대상을 확정해 늦어도 연말엔 첫 삽을 뜨는 게 SH공사 목표다.

우체국 복합화를 추진하는 건 서울에서만 아니다. 부산에서도 지은 지 34년 된 연제구 연산5동 우체국을 복합 개발하고 있다. 2024년까지 75억 원을 투자해 우체국뿐 아니라 청년주택 30가구,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건물로 개발하는 게 목표다.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319㎡짜리 낡은 2층짜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13층, 연면적 3538㎡ 넓이 건물로 재탄생한다.

부동산 시장에선 우체국 부지가 상당한

우체국/규모(연면적)	복합용도	준공
여의도우체국 지하 4층~지상33층(6만9103㎡)	오피스	2020년 예정
논현동우체국(옛 영동우체국) 지상 8층(7733㎡)	오피스텔(128실)	2018년
마포우체국 지하 8층~지상18층(2만1079㎡)	오피스	2018년
부산 연산5동 우체국 지하3층~지상9층(8539㎡)	수업시설, 청년주택(30가구)	2022년 예정
청량리우체국	행복주택(137가구)	기획 단계
화곡4동우체국	행복주택(43가구)	기획 단계
신림동우체국	행복주택(54가구)	기획 단계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체국은 그 특성상 교통 요지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H공사가 고른 세 후보만 봐도 청량리우체국은 4중 역세권(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분당선)인 청량리역과 접해 있고 화곡4동우체국, 신림동우체국도 각각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분당선)인 청량리역과 접해 있고 화곡4동우체국, 신림동우체국도 각각 2호선 봉천역, 5호선 목동역·까치산역과 가깝다. 또 부도심에 위치한 이들 우체국

은 용적률도 많게는 680%에 달해 재건축 사업성도 좋다. 공공 부지를 사용하는 만큼 토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장점이다. 이메일, 키톡 등에 밀려 설 곳이 좁아지는 우체국으로서도 복합 개발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우체국은 우편 수요 감소, 낮은 우편 요금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올 초 우정사업본부는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전국 우체국 1352곳 가운데 677 곳을 2023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을 복합 개발하면 수익 다변화를

통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역시 복합 개발에 적극적이다. 올해 준공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의 대표적인 복합 개발 프로젝트다. 우정사업본부는 연면적 약 6만8000㎡, 지하 4층~지하 33층 높이의 매머드 건물인 여의도우체국에 상업시설, 기업 사무실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옛 영동우체국을 재건축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우체국에선 이미 오피스텔을 운영 중이다. 지하 1층은 우체국, 지상 1~2층은 상업시설을 들여놓고, 나머지 지상 3~8층엔 오피스텔 128실을 분양했다. 주변 오피스텔보다 월세가 저렴해 인근에 회사를 둔 직장인에게 인기가 좋다.

김옥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체국 등 기존 공공 건축물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단독으로 주택을 조성했을 때보다 토지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류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상한제 연기로 정비사업 ‘숨통’

서울 연내 2만1938가구 분양
예비 청약자 선택 폭 커질 듯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자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유예기간 연장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내달 28일 유예기간 전에 분양에 나설 수 있을지 노심조사하던 정비사업자들은 정부의 3개월 연장에 한층 여유가 생겼다. 한 시점에 분양이 대거 쏠릴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에서 3월 중순 이후부터 연내 총 2만1938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 민간 아파트 일반 분양가구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는 제외한 물량이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총 1만7182가구로 전체 분양물량의 80.5%에 달한다.

최근 일부 정비사업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총회를 강행하는 등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와 서울시가 총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졌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기로 전방 결정했다. 조합들은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5~7월로 분양 일정을 잡아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했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수색7구역 △증산2구역 △수색6구역 등이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4월 말 안에 분양을 진행해 상한제를 피하려 했던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신반포14차 재건축 아파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용두(용두6구역 재개발) △동작구 흑석3구역 등도 일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분양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서울 고가 집값 3.3㎡당 6000만원 넘어

반년 새 4.2%↑... 상승률 세계 1위

지난 반년 동안 서울 고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고가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3.3㎡당 6000만 원을 넘어섰다.

19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 ‘세빌스’의 보고서를 보면 작년 12월 서울에서 시가가 상위 5% 수준으로 비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1㎡당 1480달러로 반년 전보다 4.2% 올랐다. 지난해 12월 평균 원·달러 환율(1176.01원)을 적용해 보면 3.3㎡(1평)당 가격은 약 6200만 원이다. 30평짜리 집을 사려면 18억6000만 원, 50평 규모를 사려면 31억 원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서울의 고가 집값 상승률은 관련 자료가 조사된 전 세계 26개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 뉴욕과 마이애미가 각각

2.9% 올랐지만, 서울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가을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떨어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서울지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8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공론화된 이후 값비싼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투자심리가 커진 점도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벌써 서울 강남에선 3.3㎡당 1억 원을 넘어선 아파트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는 지난해 전용면적 84㎡형이 34억 원, 59㎡가 24억 원에 거래되며 3.3㎡당 1억 원 시대를 열었다.

다만 서울의 고가 주거지 가격(1480달러) 자체는 전 세계 11위 수준으로, 값 비싸기로 유명한 세계 주요 도시보다는 낮았다. 문선영 기자 moon@

www.kwnews.co.kr

江原日報 — NAVER

강원일보는 독자를 섬깁니다.

- 24시간 뉴스 서비스 체제 구축
 - 네이버 뉴스콘텐츠, 홈페이지, 앱을 통해 속보 및 뉴스 세계 타전
- 강원일보 TV채널 가동
 -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동영상뉴스, 유튜브 실시간 전달
- 본문 활자체 전국 최초로 개편
 - 독자중심, 판형 도내 유일 대판 제작
- 워라밸시대 금요일자 32면 증면
 - 주5일제에 맞춰 레저 축제 여행 건강 등 다양한 섹션 제공
- 강원도내 유일의 운전기 보유
 - 전세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편집, 신속 보도

江原日报社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T. 033)258-1000

“KEA, IKEA와 유사성 없다”

이케아, 상표 취소訴 최종 패소
재판부 “호칭 서로 다르게 발음
상품 혼동 유발시키기 어려워”

IKEA KEA

이케아 출원 상표(위쪽), A 씨 출원 상표(아래쪽)
사진제공 특허법원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자사의 브랜드 ‘IKEA’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상표인 ‘KEA’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인터이케아시스템스(Inter IKEA Systems BV)이 A 씨를 상대로 “KEA 상표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케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케아는 1997년 11월 ‘IKEA’ 상표를 출원했으며 이듬해 등록됐다. 지정상품은 면직물제 때밀이 타월, 목욕 전후에 입는 욕의, 티셔츠, 양말 등으로 정했다.

이후 A 씨는 2015년 4월 가죽신, 골프화, 농구화, 청바지, 속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KEA’ 상표를 출원했고, 특허

청은 이를 받아줬다.

이케아는 2018년 1월 특허심판원에 A 씨를 상대로 ‘KEA’ 상표는 선(先)등록상표인 ‘IKEA’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호칭이 다소 유사하게 청감 될 여지는 있지만, 외관 및 관념이 확연히 다르다”며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이케아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케아는 “KEA가 IKEA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고, 저명한 선등록상표의 신용과 명성에 무단 편승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해 등록된 것”이라며 “일반 수요자들에게 제품의 출처와 품질 등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EA와 IKEA는 영문자의 수 및 구성에서의 차이로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며 “호칭도 ‘케아’와 ‘이케아’로 서로 다르게 발음되는데 이는 어두 부분이 명확히 다르게 들리고, 음절 수도 확연히 구분돼 결과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케아의 상표 출원일 당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저명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해 등록받아야 한다”며 “KEA는 IKEA와 표장이 같거나 유사하지 않은 이상 부정한 목적의 출원 상표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종용 기자 deep@



‘드라이브 스루’로 새 교과서 수령

19일 경북 영천시 영천중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차에 탄 채 차 밖에서 담임교사가 전달하는 새 학기 교과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가 ‘온라인 강의’ 연장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부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만큼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와 고려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어 온라인 강의를 각각 1주일과 2주일 더 진행하기로 하는 등 대학가에 원격수업 기간 연장이 확대되고 있다.

중앙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강을 2주 연기한 후 16일(개강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30일부터 학교에 등교해서 집합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3일에서 다음 달 6일로 2주 추가 연기하면서 온라인 강의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 대면 강의를 한다”면서 “실습·실습 중심 학과의 경우 종강을 2주 더 연기해 이후 실습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온라인 강의를 1주일 더 연장

하기로 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대면 강의 일정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6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숭실대도 교무회의를 열어 온라인 수업을 2주 더 늘렸다. 숭실대 관계자는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면 또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달 30일 예정이었던 비대면 수업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선대와 경상대 역시 총학생회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온라인 강의 기간을 1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온라인 강의 기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온라인 강의 연장을 무기한으로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경대는 학내 구성원 합의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카이스트(KAIST)도 개강 이후 2주간 진행하기로 했던 온라인 강의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자격증 빌려 문화재수리 낙찰... “사기죄 아니다”

대법 “공사대금 편취 단정 잘못”
문화재 보호 위반 등 혐의는 유죄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수리 사업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B 건설사 대표인 A 씨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려 보은군 등과 문화재수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58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등을 보유해야 하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A 씨 등에게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사를 문화재수리업자로 부정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를 낙찰받고 공사대금을 편취했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공사대금을 속여 뺏을 의사로 문화재수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가 곧바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 씨가 수리공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었던 데도 B사가 직접 할 것처럼 속여서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것”이라며 “1심 증거에 의하더라도 C 씨는 B사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이므로, 이를 B사의 공사로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3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20. 03 VOL.003

나이가 무상 매달리는
하루의 미소

영성 부동산 현상
“오자 불온” 마라자구

불편과 스코프 나열과
조화로운 삶

정신 5주년 기념
주목적
신원 이번호

경주 송가정마을로 떠나는
유물전 감상여행

“안녕이 올거릴 이라는
좋은 사람과 함께서요”
익숙하고 편안한
국민가수 김상희

슈퍼리더의 솔거린
하사리를 발견하다

하루장의 품격을 짓다
Noble House

COVERSTORY 하우스의 품격을 짓다

- PART1. 1인 가구 vs 다세대 가구 - 따로 또 같이, 가구별 하우스링
PART2. 시니어 하우스를 가다 - 품격을 담은 노후 보금자리
PART3. 집에 대한 고민들 - 늘어나는 세금부담 “넘겨라!”
PART4. 노후 하우스 함께 짓다 - “나이 들면 한집에서부터 살아가고 싶어!”
PART5.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테리어 - 클래식한 분위기로 공간을 꾸미다

더불어
다산은 시를 짓고
초익은 그림을 그렸다

동화 작가 권정생(1937~2007) 선생께는 남이 없었다. 사람은 물론, 보잘것없는 식재료나 강아지 통조림 그 어떤 남이 아니었다. 모든 존재를 남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남의 일이라는 것도 없었다. 남의 일도 내 일로 알아 남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가슴이 깊었던 어느 여름날, 별칭이 타들어가는 벼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아슬이 맺혔다. “저것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그런 중얼거림이 새 나왔고, 이런 눈, 이런 연민,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고수열전

‘악육강식’ 믿을 거 없다

동화 작가 권정생(1937~2007) 선생께는 남이 없었다. 사람은 물론, 보잘것없는 식재료나 강아지 통조림 그 어떤 남이 아니었다. 모든 존재를 남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남의 일이라는 것도 없었다. 남의 일도 내 일로 알아 남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가슴이 깊었던 어느 여름날, 별칭이 타들어가는 벼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아슬이 맺혔다. “저것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그런 중얼거림이 새 나왔고, 이런 눈, 이런 연민,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신라보가 만난 사람들



“제2의 인생은
이제와 함께”
아구 감독
유승안



현명한 남편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편입니다
한지 같은 여자
국민가수 김상희의 삶과 사랑



물론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변호사
박연태

Living & Home | 모던하고 심플하게, 홈 오피스 및 아이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어떤지 뒤편 도전하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종종 생깁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책장의 묵은 먼지도 털고 책상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져보자. 편안한 느낌을 주는 무드나 베이지트, 또는 블랙 포인트 아이템으로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게 홈 오피스를 꾸며보면 어떨까요?



생생 부동산 현장 | 주택은 괜찮는데, 상가는 ‘덜세’..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바·용·성 못지않게 핫한 지역이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다. 마곡지구는 지금까지 드러난 호재에 최근 또 다른 호재가 겹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마곡지구가 품은 부동산 호재와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성인병 예방하는
브로콜리 활용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
신중국 투자로
저금리 넘는다

서울시 ‘코로나 추경’ 8619억 편성

‘민생·피해기업·안전’ 집중 투입
재난 긴급생활비 3271억도 반영
“복지 사각지대 촘촘히 메우겠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으로 8619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19일 ‘2020년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경은 시의회 의결 즉시 상반기 중 집행되며 △민생안전지원 △피해업체지원 △시민안전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 급감, 해고 등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와 같은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난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전날 박원순(사진) 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쓰일 3271억 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절벽

에 직면한 시민 등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5868억 원을 사용한다. 이 예산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 원) 등에 쓰인다.

재난 긴급 생활비의 경우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게 가구별로 30만~5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매출 격감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고용 유지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등 ‘3중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피해 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에는 종전 5000억 원에서 추경으로 3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했다. 더불어 고용유지 지원(201억 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37억 원), 착한 임대인 지원(23억 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 자금 지원(12억 원) 등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관광 업계 안정화를 위해 1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50억 원),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45억 원),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5억 원) 등이 사용된다.

또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645억 원을 투입한다. 방역체계 보강(230억 원), 방역물품 적기 지원(200억 원),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원(215억 원) 등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직접 즉시 지원해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 생활비는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송파구, 임신부 마스크 무료 지급

19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박성수(왼쪽 첫번째) 구청장이 구청 및 보건소 관계자들과 관내 임신부 3000명에게 전달할 일회용 마스크 총 3만장을 포장하고 있다. 마스크는 4월 3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급된다.

19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박성수(왼쪽 첫번째) 구청장이 구청 및 보건소 관계자들과 관내 임신부 3000명에게 전달할 일회용 마스크 총 3만장을 포장하고 있다. 마스크는 4월 3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급된다.

은평구, 예비 초등생 마스크 2장씩 지원

서울 은평구가 취학을 앞둔 아동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은평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취학 예정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의 공적 마스크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취학예정 아동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지원 대상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은평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올해 취학예정 아동 3120명이다. 25일까지 1인당 2장씩 통장을 통해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동들은 특히 감염에 취약하고 발병 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정에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역사회 감염예방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올해 수소차 구입하면 ‘보조금 3500만원’

서울시, 25일부터 1250대 접수

서울시는 올해 수소차 1250대 보급을 목표로 25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487억 원을 투입해 민간 보급 수소승용차 물량 1220대 중 1차분 650대를 지원한다.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국비 2250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1250만 원을 더해 총 3500만 원이다.

서울시의 올해 보급 목표인 1250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보급 대수인 584대(민간 승용 573대, 시·자치구 승용 11대)의 21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중

료별로는 민간 승용 1233대, 자치구 승용 13대, 민간 상용(버스) 17대다. 서울시는 충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인당 1대며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업체당 10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수소차 대체 구매, 취약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수소

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20%를 우선순위로 대상으로 보급한다.

서울시는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차 구매자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남산더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김진희 기자 jh6945@

노원구 “라돈 측정기, 500원에 빌려 드려요”

서울 노원구가 침대, 라텍스, 대리석 등 라돈 노출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원구는 라돈 측정기를 19개 동 주민센터마다 2대씩 총 48대를 구매했다.

라돈은 암석과 토양에 존재하는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무색, 무취한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노원구는 라돈에 대한 주민 불안을 줄이고자 2018년 7월부터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주고 있다. 올 1월까지 3557명이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대여 서비스는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구청 홈페이지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자 모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당일 반납해야 한다. 다음 예약자를 위해 반납시간을 필히 지켜야 한다. 이용료는 500원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박영사
신간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케어 대표이사
전) 김정문알로에 대표

하늘과 바람과 목향 스민 호숫가 옆 미술관

경주 솔거미술관

삶은 일쭉 속되고 진부하지만, 미술관의 작품들은 사람의 감성을 슬쩍 흔들어 잠시나마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게 한다. 이제 미술관은 미술품을 소장하고서 그저 작품 감상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다. 야외공간을 확보하거나 다양한 부대시설을 만들어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은 물론, 자못 우아한 휴식공간의 역할까지 도맡고자 하는 것 같다. 미술관 건축 자체를 예술적으로 기발하게 디자인하고 있으며, 정원 조성에도 공을 들인다. 도시의 안통을 벗어나 자연 속으로 스며드는 미술관도 많다. 이른바 전원형 미술관이다. 자연이라는 모티브만큼 매력적인 호객 매체가 다시 있겠는가.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

나는 지금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시 엑스포공원 안에 있는 솔거미술관에 와 있다. 경주시에 열린 첫 국립미술관이다. 한국화의 거장 소산(小山) 박대성(76) 화백이 평생토록 그린 작품 830점을 기증하면서 2015년에 개관했다.

솔거미술관은 전형적인 전원형 미술관이다. 아트막한 야산이 푸근하게 늘어뜨린 치맛자락을 거머쥔 미술관이다. 토함산 솔하의 막내둥이에 속할 야산의 이름은 대덕산. 1921년, 당시 남한 땅에 생존했던 마지막 호랑이가 이 산 갈피에서 잡혔다고 하니 애석하다.

미술관 뒤편 산 아래엔 자그마한 자연호수 아평지(阿平池)가 있다. 옷을 훌훌 벗고 늘어선 호숫가의 겨울나무들이 물에 드리워진 제그림자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역시 그림이라 눈길에 한참 거기에 머문다.

이쯤이면 미술관에 입장하기 전에, 또는 미술관 관람을 마친 뒤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라고 미술관을 산자락 호숫가에 들어앉힌 게 아니겠는가.

‘빈자의 미학’ 스민 건축

“어눌한 게 달변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나를 광야로 추방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비판자로 살겠다”고도 했다. 건축가 승효상이다. ‘빈자의 미학’으로 건축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그는 인간을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존재로 봐 모두가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같다. 그가 말하는 요점은 ‘가집보다 쓰임, 더함보다 나눔, 채움보다 비움을 중시해 지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척박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데 있다.

승효상의 설계로 지어진 솔거미술관을 보면 그의 건축적 지향이 실감으로 다가온다. 산자락 초목들을 곁에 둔 미술관의 외관은 들쭉이는 구석 없이 수긋하다. 숲은 묵연하고 미술관은 겸손해 불화 없이 조응한다.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세운 벽과 벽 사이엔 나무쪽을 켜켜이 채워 콘크리트의 투박한 본성을 자연스럽게 누그러뜨렸다. 나무도 콘크리트도 나이를 먹어갈 것이다. 비와 바람과 햇볕에 마모되고, 색이 바래고, 티끌과 이끼가 틈서리마다 배어 음영이 짙어지겠지. 마침내 잘 늙은 집으로 변모할 게다. 깊은 운치를 풍기며 미술관의 역사를 웅변할 게다.

미술관 내부 역시 승효상의 철학을 느끼게 한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회랑엔 계단과 함께 슬그머니 휘어지는 경사로를 조성해 물 흐름처럼 자연스러운 리듬을 부여했다. 미로에 들어선 것 같은 흥미마저 저지아낸다.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년층 관람객을 위한 섬세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

전시공간마다 적절히 배분된 자연광과 인공광. 싱그럽게 자란 대나무와 열린 허공으로 흐르는 구름이 보이는 중정(中庭). 차경(借景, 외부 자연풍경을 안으로 끌어들이기)을 위해 제3전시관의 벽을 뚫어낸 통유리 프레임의 이채. 전시작품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복돋우는 객체들의 조합과 질서가 정교하다. 전시관의 천장이 매우 높은 건 미술관의 방장에 해당할 소산 선생의 대작들을 고려한 방책이다.

관람 인원 해마다 급증

경주의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솔거미술관 말이다. 어느 하루는 자그마치 2000여 명이 관람했다. 서울에 있는 유명 미술관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라니 통쾌하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솔거미술관의 매력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연 경관과 동거하는 미덕, 그리고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라는 강점에 있다. 그러나 진정한 매혹은 소산 선생의 작품이 뿜는 아우라. 전시관 벽에 걸린 선생의 수묵화 앞에 선 심취한 표정들을 보라. 젊은 관람자들이 눈을 깜빡이며 골똘히 그림을 들여다본다. 와우! 그런 찬탄을 터뜨리며.

전소산의 수묵화들은 실로 압권이다. 자유자재한 작품으로 먹의 향연을 펼쳤다. 바위를 후벼낸 듯 거침없는 운필로 산수를 그리고 화조(花鳥)를 찍어냈다. 10m 너비의 대작을 예상롭게 그려내는 괴력으로 예술혼을 불사르는 거장의 진면목을 알아보게 하는 작품들이다.

솔거미술관 탄생시킨 소산 박대성 화백

소산 선생 말하길, 예닐곱 살 때부터 붓을 노리게 삼았더라. 집안 제사 때면 펼쳐지는 사군자 병풍, 그걸 보고 그림이라는 걸 끼적이기 시작한 게 외골수 화업(畵業) 인생의 싹눈이었다. 마냥 붓질을 놀 만한 형편은 아니었다. 배를 굶지 않기 위해 들일을 해야 했으니까.

그런 수밖에 없었던 게, 그는 일찌감치 양친을 잃었다. 빨치산들이 아버지를 반동 지주로 몰아 낚으로 살해했다니 참혹하다. 네 살배기 어린애였던 그의 몸에도 낫날이 들어와 팔 하나를 앗아갔다. 현재 소산의 왼팔은 의수다.

그럼에도 붓을 내던지지 않았다. 외팔로 삶에 가담해 밥을 벌기엔 그나마 지필묵이 상책이라 본 천직 어른들의 독려 덕이기도 했다.

“몸에 핸디캡이 있으니 어느 한 가지 쉬운 게 없었지. 그러나 불편한 조건들이 결과적으로 내겐 복이었

어요. 나를 무쇠처럼 담금질할 수 있었으니.”

그의 예전 작업실엔 ‘불편당’이라는 당호가 붙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다는 걸, 불편을 통해야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수묵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정신의 높이도 불편과의 동행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당호로 다짐했던 셈이다.

이 ‘불편의 사제’의 붓놀림은 성정처럼 쾌활해 일필휘지에 능란하다. 깊고 아득한 먹색이 내려앉으면 그윽한 산경이 화폭에 아롱진다. 분출하는 화산의 기세로 묵을 써 화선지를 한바탕 희롱하고 나면, 거기에 웅장한 대자연이 꿈틀거린다. 정밀한 필선의 운용에 물이 올라 극사실화로도 이미 극치에 이르렀다. 서예는 또 어떻고? 김생과 추사를 진즉에 섭렵한 소산의 서(書)는 빼어나, 듣느니 늘 명필 소리다. 이렇게 그의 예술 생태계는 다중변주로 비옥하다.

“동양의 필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완벽한가. 소필, 중필, 대필로 구분되는 필(筆)을 좌우사방, 맘대로 돌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서양화 붓은 이게 안 되거든. 우리의 필은 자유로워 걸림이 없지. 대 그림자가 물에 스치듯 평화롭단 말여.”

830점의 작품을 기증한 이후 소산은 고향의 외진 산속으로 작업실을 옮겼다. 이전보다 작품량은 더 늘어났고, 대작을 그리는 습(習)도 깊어졌다.

“내게 작업실은 유배지와 마찬가지로. 산고(産苦)와 다르지 않은 창작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외로움 속으로 나를 밀어 넣을 수밖에 없으니.”

“하하핫! 선문(禪門)에 전해오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祖師)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추사는 성인 반열에 오른 본인데 감히 넘볼 수 있을까. 그러나 추사는 했는데, 나는 못한다? 그럴 리가. 내가 필묵을 닦기를 추사 못지않을 만큼은 하고 있소.”

소산에게 추사는 서화의 이상적 아이콘을 상화하는 존재다. 그는 선지식으로 서의 추사를 타념고 싶은 것이다.

글/박원식 소설가 bravo@
사진/주민욱 프리랜서
minwook19@hanmail.net

‘한국화 거장’ 박대성 화백 기증 계기로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 2015년 개관
노출 콘크리트에 시원하게 뻗은 천장
10m 너비 대담한 ‘먹의 향연’과 조화



‘한국화의 거장’ 박대성(왼쪽 사진) 화백이 평생 그린 작품 830점을 기증하면서 문을 연 경주 솔거미술관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연 경관과 함께하는 전원형 미술관이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요즘 해외주식 지구가 인기라는데,
해외주식 투자는
어디서 해야 하나? ”



글로벌 투자 · 자산관리의 名家

하나금융투자에서 시작하자!



온라인 5개국, 오프라인 23개국 * 기준일 2019.7.5
28개국 거래 가능 서비스



해외주식 전문가의
24시간 상담 서비스 02)3771-3771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주식 매매수수료는 온라인기준 미국 0.25%(최소수수료 USD 5), 중국 0.3%(최소수수료 없음), 오프라인기준 미국 0.5%(최소수수료 USD 20), 중국 0.5%(최소수수료 CNH 50), 국가별, 주문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2690호(2019.07.05~2020.07.04) CC브랜드190705-64 m.hanaw.com | 1588-3111

 **하나금융투자**

“부동산 실거래가? 그 이상의 정보를 드립니다”

설립 6년 맞은 호갱노노 심상민 대표

직원 18명 중 11명 개발자...기획~개발 모두 책임지는 구조
정보불균형 피해 없애고, 단순 통계 넘어 ‘이야기’ 제공 주력

‘지금 이 순간, 집을 구하려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심상민<사진> 호갱노노 대표는 늘 고민한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프롭테크(Prop Tech.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 호갱노노는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이미 수많은 정보를 집약하고 있지만 17일 인터뷰를 진행한 심 대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호갱노노는 창업 6년 만인 올해 월간 사용자 수가 200만 명을 넘을 만큼 ‘핫’한 앱이다. 지난해 12월 한 모바일 기업의 조사 결과 호갱노노는 부동산 카테고리 앱 분야에서 11개월 만에 5위에서 2위(사용자 수 기준)로 급증 뛰어올랐다.

호갱노노가 단순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시장의 동향과 수요자의 니즈를 간파해 이를 빠르게 기술로 구현하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호갱노노 18명 중 개발자가 11명이다.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한 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기능을 담당한다. 한 기

능의 첫 기획부터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책임은 무겁지만 일반적인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속도감은 남다르다.

실제 호갱노노는 최근 분양에 나선 단지들의 30일간 접속자 수를 그래프로 확인하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분양 단지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면서 청약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해당 단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져서다. 호갱노노는 해당 단지 접속자의 접속 지역과 연령대 등을 확인하는 기능도 개발 중이다.

효율성의 극대화도 호갱노노 성장의 동력이다. 호갱노노 앱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뜨는 화면이 지도다. 지도 위 아파트를 클릭하면 실거래가가 주식 차트처럼 펼쳐진다. 여기도 학군, 교통, 일조량, 인구가 동 등의 정보를 낱알이 보여준다. 손가락 몇 번의 클릭이면 원스톱으로 정보를 해결



할 수 있다. 실시간 접속자 수를 통해 관심 단지와 지역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부산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당시 발표 시점부터 40분 동안 부산 아파트 4곳이 실시간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심 대표가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심는 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정보 불균형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경험’과 ‘배려’ 때문이다. 사망 그대로 호갱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에서 파는 모자도 상품 설명이 A4용지로 17장에 달할 만큼 방대한데 호갱노노가 나오기 전 부동산 사

이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2장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차 같이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심 대표가 6년 전 호갱노노를 설립한 이유이기도 하다. 호갱노노는 노령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인터페이스(UI)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호갱노노는 일반적인 통계·분석앱이 아닌 참여형 앱이기도 하다. 17일 기준 이 앱의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단지 정보엔 716개의 이야기가 쌓여 있다. 우리 동네 개발 계획은 물론 단지 사진, 인테리어 정보 등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기도 하다. 차곡차곡 쌓인 이야기와 댓글은 130만 개가 넘는다.

그는 호갱노노가 집을 구하는 과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과거에 매물 정보만 보고 중개업소에 찾았다면 이제 실거래가는 기본적으로 알고 집을 구한다. 굉장한 변화다”라고 자부했다.

심 대표는 호갱노노 같은 프롭테크 기업이 앞으로 부동산 산업 변화의 주축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그간 호갱노노가 가진 기술로 사용자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면, 앞으로 이 기술로 부동산 분야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아산재단 ‘아산의학상’ 시상식
이원재·이재원 교수 본상 수상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제13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 이원재(53·위 왼쪽 사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임상의학 부문 이재원(63·오른쪽) 울산대 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교수에게 각각 3억 원,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인 주영석(38·아래 왼쪽) KAIST 의과대학원 교수와 이용호(40·오른쪽) 연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에게 각각 5000만 원 등 4명에게 총 7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아산의학상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낸 국내외의 과학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2007년 제정됐다. 아산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2011년 조성한 아산의학 발전기금을 2017년 4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아산의학상 시상 및 수상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300여 명의 수상자와 가족, 동료 의과학자가 참석하는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던 아산재단은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상자 부부만 초청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현대오일뱅크 노사 ‘코로나 헌혈’
강달호 사장·최용수 위원장 참여



현대오일뱅크는 강달호<사진 왼쪽> 사장과 최용수<오른쪽> 노조위원장 등 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단체 헌혈에 나섰다 19일 밝혔다.

헌혈은 강 사장과 최 위원장을 비롯한 200명의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함께 18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과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했다.

강 사장은 “위기 상황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앞서 충남도청을 통해 도내 의료진 4곳에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생수 10만 병을 지원했다. 서산시에는 입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SK C&C ‘행복IT장학금’ 전달



안석호(뒷줄 왼쪽) SK C&C 행복추진센터장과 유명호(오른쪽)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이 19일 경기 분당 SK-u타워에서 ‘2020 행복IT 장학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이날 행사에는 SK C&C는 총 47명에게 1억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하준 “코로나19 대응, 현금지급보다 세금감면이 효과적”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관료들 재정건전성 지나친 강박관념...OECD도 돈 더 쓰라 해”

장하준<사진> 영국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같은 현금 지급보다는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코로나19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됐건 기본적인 공과금이 됐건 그런 걸 깎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물론 돈을 주면 어느 정도는

쓰겠지만 지금 문제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인터넷 쇼핑, 배달 이런 게 발달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현금 지급 방식이 조금 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뭐 먹고 쓰고 할 그 환경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기업들이 사정이 안 좋아서 해고해야 할 인원들을 안 하고 데리고 있으면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든가 총노동 인구의 한 25% 되는



자영업자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세금감면 자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재정관료들께서 아주 지나친 건전 재정에 관한 강박 관념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제비율이 국민소득 대비해서 40% 좀 넘는데, 유럽의 대여섯 개 나라 40% 안 되는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재정 적자 싫어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은 돈 좀 더 재정을 통해 써도 된다. 이런 얘기 맨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NH증권 ‘코로나19 극복’ 5억 규모 성금·물품 기부

NH투자증권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총 5억 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 기부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약 1억 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며, 이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기탁할 예정이다. 12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1억 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구입해 대구시청에 전달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로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3억 원 상당의 꽃을 구매해 2월과 3월에 우수 고객에게 전달했다.

11일에는 범농협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사랑의 농산물꾸러미’ 나눔 행사에도 참여했다. 정영채 사장을 비롯한 농협금융 계열사 대표들은 홍삼, 사과즙, 양파즙 등 6종의 국내산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4000박스를 제작했다. 이날 제작된 ‘사랑의 농



NH투자증권은 12일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홍삼 등 1억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대구시청에 전달했다.

산물꾸러미’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구 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 환자 및 방역활동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전달됐다.

박기영 기자 pgy@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기획담당관 김효정 △재정담당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 나기호 △항공정책과장 이정희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김동준

◆중소벤처기업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엄진엽 △소상공인정책과장 조재연

◆새만금개발청 ◇4급(서기관) 승진 △신산업전략과 양건식 △운영지원과 양욱철·이상필 △기반시설과 김현주 △산업진

흥과 박영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부장 한승희

◆한독 <승진> ◇전무 △사업개발실 권소현 △법무실 김영 ◇상무 △스페셜리티 프랜차이즈 김운미 △커뮤니케이션실 허은희 ◇상무부 △경영조정실 김동한 △OTC&헬스케어 사업실 김미연 △OTC&컨슈머헬스케어 영업실 김현민

◆한국일보 ◇국장급 승진 △미래기획실장 송영웅 ◇부장급 승진 △AD지원팀장 우성태 ◇부장대우 승진 △멀티미디어 부 고영권 △멀티미디어부 홍인기

부음

▲권분이 씨 별세, 문경안(불빅 회장)·춘선·춘옥 씨 모친상, 김영란 씨 시모상, 문지은(불빅 상품기획팀차장)·정환(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 과장) 씨 조모상 = 19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 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 30분, 02-2650-5121

▲이금연 씨 별세, 김영선(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장) 씨 장모상 = 19일, 광주 서구 VIP장례타운 302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30분, 062-521-4444

한독 대표이사에 백진기 부사장

한독은 19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백진기 인사 부사장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백진기 대표이사 부사장은 1984년 한독에 입사해 36년간 인사, 조직, 교육 및 노무관리를 이끌어왔으며 우수한 기업문화 구축에 기여했다.

한독 관계자는 “36년간 한독에 근무한 백 신임 대표이사는 무엇보다도 한독의 기업문화나 비즈니스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메쉬코리아, 백제현 CISO 영입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IT 기반의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는 보안 전략실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로 백제현 박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제현 CISO는 보안인식제고와 디지털 포렌식 분야 전문가로,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템보안전문가(CISSP)는 물론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EnCase 조사전문가(EnCE) 등 국제공인 자격증 5종을 보유한 국내 손꼽히는 보안 전문가다. 다양한 업종과 기업에서 정보보호책임자로 일해온 백 CISO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최영희 기자 che@



조석의 遠見明察

(원견명찰)



현대일렉트릭 사장

좋은 여건으로 남보다 빨리 출발한 사람이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지만은 않는다는 세상의 이치가 신비로울 때도 있다. 하긴 국가 차원에서 봐도 그 시절 필리핀은 ‘부잣집 아들’과 같은 국가였다고 할 수 있으니 개인이나 국가나 세상의 이치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어릴 적 살던 마을의 이름은 ‘물앙말’이다. 그 시절에는 의미도 모른 채 비슷한 발음으로 불렀던 기억이 난다. 최근 전 주시의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 찾기에 의하면 ‘물앙말’이라는 이름은 마을 가운데 공동의 우물이 있었고, 그 물의 맛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어느 마을과 비슷하게 우리 마을도 판잣집과 더불어 평평한 슬래브의 시멘트 집, 변형된 형식의 한옥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은 가난했고,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지금은 초등학교)는 오전반과 오후반이 별도로 운영될 정도로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었다.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 들었던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인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왔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가난했던 그

시절에도 동네에는 ‘부잣집 아들’이 있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수준과 비교하면 부자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겠으나 그때는 주위의 부러움을 살 만큼 여유 있는 가정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시절 그 친구가 지금도 잘살고 있는지 가끔은 궁금하다.

좋은 여건으로 남보다 빨리 출발한 사람이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지만은 않는다는 세상의 이치가 신비로울 때도 있다. 하긴 국가 차원에서 봐도 그 시절 필리핀은 ‘부잣집 아들’과 같은 국가였다고 할 수 있으니 개인이나 국가나 세상의 이치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는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 세계화가 성숙하여 하나의 지구촌이 된 지금의 세계 경제는 모두가 서로서로 경쟁의 대상이 된 서바이벌 게임이 되었다. 조금 앞서간다 해서, 힘들고 피곤하다 해서, 심지어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이 있다 해서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뒤로 물러나야만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멈추지 않고 달려야만 현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기업은 더욱 그러하다.

과거의 명성이나 막연한 기대만으로 성공한 기업이 되기 어렵다.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낮은 원가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성,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 내겠다는 치열한 노력과 자기 헌신이 계속되어야 한다. 국내 소비자들 이니까 국산 제품을 사 주겠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누군가가 돕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이 시장의 원칙이다.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게으름’과 ‘낭비’는 피해야 할 부끄러움이다.

경제적 성과를 위해서 사람다운 삶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경제 성장이 없이는 사람다운 삶을 유지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성장을 앞세우는 경제가 인간을

경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70억 명이 넘는 인류가 하나의 지구촌에서 모여 사는 현실을 차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계속해서 뒤지 않으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뒤처지게 된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새로운 부가가치도 새로운 나눔도 만들 수 있다.

‘부잣집 아들’이 자기가 가진 것 모두를 나누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일 뿐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주위에 인색한 ‘부잣집 아들’이 싫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하게 되어 버릴 수는 없다. 오늘날 내가 살던 ‘물앙말’은 현대식 아파트 단지가 되었다. 가끔은 몸과 몸을 부닥치며 어울려 지냈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다. 혼자 있을 때면 과거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 가난했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전정일의 식물과 함께 하는 시간

신구대 원예디자인과 교수·신구대식물원 원장

식물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다리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식물들은 이미 꽃을 피웠고 어떤 식물들은 새싹을 내기 시작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잠들었던 것 같은 식물원이 깨어나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형형색색 봄옷을 차려입고 식물원을 찾는 관람객도 많아져 식물원에 활기가 도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휘감는 지금의 어려움 탓에 식물원은 봄소식을 기뻐할 새도 없이 온통 걱정에 싸여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의료계 분들의 전문성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뉴스와 방송에서 의료계 분들의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성과들을 보면서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공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계기로 또다시 닦쳐올 수

있는 새로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처럼 2000년대 중반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전염병인 신종플루를 치료한 ‘타미플루’는 팔각회향이라는 중국의 고유 식물로부터 개발되었습니다. 또, 해열·진통제로 개발되어 지금은 항응고제와 심장마비·뇌졸중 예방치료 등에 두루 쓰이고 있는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주목으로부터 개발된 항암제 택셀, 은행잎 추출물 등 많은 식물 기반 신약들이 개발되어 사람들을 질병으로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세계 천연물 관련 시장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하여 약 100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천연물 의약품만 도 시장 규모가 2023년에 4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천연물 의약품 시장도 그 규모가 5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물 기반 신약 개발에는 기술력과 함

께 원재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약 40만종의 식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약 5000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식물자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물자원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생물 자원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 총회에서 채택되고 2014년 10월 평창 총회에서 발효된 이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은 현재 117개국이 비준을 받아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중심 내용은 “생물유전자원을 가지고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개발해 이익을 내면 해당 유전자원 이용자가 유전자원 제공자(기업·기관 혹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지구 생명체의 근간인 식물이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즉 멸종되는 속도가 엄청나다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영국의 큐 왕립식물원과 스웨덴 스톡홀름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총 571종의 야생식물이 최근

250년 사이에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않은 수로 보이지만 자연적으로 도태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최대 500배 빠르다고 연구자들은 분석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식물이 사라져가는 문제이든 국가 간 자원 경쟁의 측면에서든 식물의 보호·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을 야생상태로도 보호할 수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보전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식물원과 수목원입니다.

전 세계에는 약 4000개 이상의 식물원과 수목원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들 식물원들이 전 세계 식물의 3분의 1 이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 등록된 68개 식물원과 수목원이 있지만, 식물 보전 기능이 선진국 식물원과 수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적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은 실내보다는 야외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물원과 수목원에 방문하셔서 답답함도 푸시고 인류를 위한 식물원과 수목원의 노력도 도와주시길 바라봅니다.

어려운 때, 식물원에서 답을 찾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박인환(朴寅煥) 명언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그 눈동자 입술은/내 가슴에 있다”
‘세월이 가면’ ‘목마(木馬)와 숙녀’ ‘거리’ ‘남풍’ 등의 시를 쓴 시인. ‘아메리카 영화 시론(試論)’을 비롯한 영화평을 많이 썼으며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번역했다. 그의 시 ‘세월이 가면’ 첫 연(聯)이다. 오늘 그는 세상을 하직했다. 1926~1956.

☆ 고사성어 / 수어지교(水魚之交)
물과 고기의 사귄이란 뜻.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에 비유한 말이다.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劉備)와 제갈량(諸葛亮)의 사이를 비유한 데서 비롯됐다. 출전은 삼국지(三國志) 제갈량전(諸葛亮傳). 유비와 제갈량과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친밀해지는 것을 관우(關羽)와 장비(張飛)가 불평하자, 유비가 그들을 불러 타이르며 한 말. “나에게 공명(孔明)이 있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는 불평을 하지 말도록 하라[孤之有孔明猶魚之有水也.願諸君勿復言].” 둘은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한다.

☆ 시사상식 / 카르텔(cartel)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대표적인 국제 규모의 카르텔.

☆ 신조어 / 톡디
‘톡 아이디어’의 줄임말.

☆ 유머 / 어이없이 비싼 호텔 방값
호텔에 처음 간 신혼부부가 첫날밤을 치르고 체크아웃하려 프런트에 갔다. 사용료를 묻자 직원이 “객실 사용료는 1회 7만 원입니다”라고 했다. 신랑이 놀라 한참 머뭇대다 지갑을 열어 대금을 지불하고 투덜대며 한 말.

“젠장, 무지막지하게 비싼 방이네. 여기 있어요 70만 원!”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나 경 연 금융부/contest@

“데이터센터, 넌 내 거야”

야하는 일부 IT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타 은행들이 이미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하남 쪽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데이터센터 완공 단계에 들어선 것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것이다.

당장 센터 설립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여유도 없었다.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나 편의 시설을 비롯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부 실무자들은 이번 데이터센터 설립 과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이라고 표현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신년사에서 디지털을 핵심 키워드로 꼽을 정도로 데이터센터 설립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런 목표의식 때문인지 30년 가까이 기획재정부 관료로 있던 방 행장에게 ‘디지털 전문가’라는 호칭도 뒤따랐다.

행장 취임과 예산 편성 시기가 우연히 일치하면서 공급업체 데이터센터 설립은 방 행장의 업적이 됐다. 동시에 방 행장은 디지털의 상징이 됐다. 데이터센터 설립이 실제 방 행장의 업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혼란의 시기 일수록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이다. 말 많은 내부보다 조용한 외부의 시선이 때론 더 무서운 법이다.

이슈&인물

감정평가법 개정안 통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업자’ 꼬리표 떼는 데 48년 걸렸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업자’ 꼬리표를 떼어내는 데만 48년이 걸렸습니다. 감정평가산업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국가정책 등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3일 서울 서초동에서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을 만났다. 그간 공을 들여왔던 감정평가법 개정안 통과라는 성과에도 그는 이제 막 ‘한 단계’를 넘어선 것뿐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감정평가사들은 보상 평가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규정되며 지난 48년간 ‘업자’로 불려왔다.

김 회장은 “전문자격사 가운데 ‘업자’라는 용어는 감정평가사만 사용하고 있었다”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법정 용어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정평가업이 감정평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한다. 2016년 9월 1일자로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했지만 여전히 감정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시장 혼란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명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문제도 감정원이 전담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김 회장은 주장한다.

김 회장은 “몸이 아프면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감정평가 업무에서는 비전문가에게 일을 맡겨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감정원은 감정평가 자격증을 딴 전문인력이 200명 남짓이지만 협회에는 4300명, 수습기간을 마치지 않은 인원까지 더하면 4800명이거나 되는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감정평가사)에게 맡겨 시장가격에 맞게 표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개별 부동산 가격을 매길 때 참고하면 된다”며 “세금도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과세의 기준인데 표준 부동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면 불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협회는 공시가와 관련한 불신 요인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 보상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의 땅값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별써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며 협회까지 찾아오고 있다”며 “그간 2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 우리가 감정평가액을 올려준다고 보상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에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신의 결과”라며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감정평가에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만 정부의 지시가 내려 온 적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상지역 감정평가를 할 때 법적으로 개발 이익을 배제해야 하는 부분 등에 있어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신도시 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협회는 감정평가 자격증을 딴 전문인력이 4300명, 수습기간을 마치지 않은 인원까지 더하면 4800명이 있다”며 “그동안 감정평가 업무를 비전문가에게 맡겨 불신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문자격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행 법률에 ‘업자’로 규정돼
공공성 위해 벌써 개정했어야
감정평가업무 손뎌 ‘한국감정원’
명칭 그대로 사용 시장 혼란

감정평가에 정부 의지 반영?
그런 적 없고 그럴 수 없는 구조
올해 보상 시작하는 3기 신도시
주민의견 충분히 듣고 설명할 것
‘카파랜드’ 앱 상반기 중 서비스

정을 한 후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한 가격은 감정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에 들떠 이런 부분을 간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감정평가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문제”라며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사들과 함께 LH와 주민대책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작년 초 회원들로부터 92%라는 절대적 지지율로 재선임됐다. 회원들이 보내준 지지에 김 회장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있다.

김 회장은 “처음 협회장직을 맡으면서 △리마인드(remind) 2018 △리빌딩(rebuild) 2019 △그립(grip) 2020이란 구호를 내세웠다”며 “감정평가업계가 어떤 길을 걸어오고 어느 위치에 왔는지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업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재설계에 나섰으며 이제 그 성과를 손에 쥐어야 하는 시기에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불공정한 금융기관과의 관계, 유사평가행위들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감정평가사들을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제 역할을 찾아가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회장은 남은 임기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법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며 “이제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 들어가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 4000명이 넘는 평가사들이 얻은 정보를 활용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감정평가사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얻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지수를 만들고 이를 서비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카파랜드’(가칭) 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이게 될 카파랜드에는 실거래가, 비용계산기 등 가격 정보와 물건주소, 등기정보 등 기본정보는 물론 교통, 지역개발정보 등 주변 정보가 담기게 된다.

특히 동네별 주택과 상가의 ‘적정 임대료’ 정보를 담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선보일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현재 상권 분석을 제공하는 앱은 있지만 100프로 공급자 중심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정보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라며 “임대료 지수정보를 제공해 ‘깜깜이’ 임대차 시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카파랜드 오픈을 위해 김 회장은 오랜 기간 준비에 나서왔다. 사실상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정보실을 취임과 동시에 정보센터로 격상하고 3개년 계획을 통해 협회 내 가장 큰 조직으로 키운 것이다. 정보센터는 카파랜드 론칭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간의 불신에서 벗어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협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에도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moon@

사설

보유세 폭탄, 공시가 인상 미뤄야 한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4.75%나 급등했다. 지난해(14.01%)보다 높고, 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도 9만 가구 이상 늘었다. 올해 또다시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19일부터 열람에 들어갔다. 주택 소유자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공시가를 결정·고시한다. 서울과 대전이 전국 평균상승률 5.99%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서울은 강남(25.57%), 서초(22.57%), 송파(18.45%), 양천(18.36%) 지역이 특히 많이 올랐고, 마포·용산·성동구 등도 10% 이상 높아졌다.

중부세를 내는 9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이 21.15%에 이른다. 중부세 대상은 전국에서 30만9361가구로 작년보다 9만1237가구(41.8%) 늘었다. 서울에서만 작년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842가구로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252만 7800여 가구 중 11.1%다. 공시가가 오른 데다, 올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아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보다 40~50%나 커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유세 폭탄이 가져올 부작용이 문제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 상당수가 부과대상이다.

별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가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가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개가 넘는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마비됐고, 한국 또한 금융과 실물경제가 함께 무너지는 최악의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까지 가동하면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돈풀기에 나서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톨이라도 가계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세계 각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다. 그러나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세금 중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가격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세 금정책으로는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의 절박한 위기에, 전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국토부의 상황인식 수준이 정말 의심스럽다.

한 킷



태풍급 강풍

전국에 강풍이 몰아친 19일 서울 양천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힘겹게 건너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를 이날 정오를 기해 강풍경보로 격상했다. 서울에 강풍경보가 내려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정 및 반론보도] 이주열의 ‘사상누각’ 관련

본지는 2020년 1월 14일 자 23면 이주열의 ‘사상누각’ 제목의 기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언론사 간부를 비롯한 몇몇 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올해 가장 큰 문제는 노조(노동조합)”라는 발언으로 노조를 맹비난하였고, 한국은행이 이 총재의 임기 내 통합별관 완공을 마치기 위해 완공일을 2022년 3월 23일로 앞당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총재는 어떠한 언론인과의 모임에서도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한국은행은 현재까지 어떠한 이유로든 통합별관 완공일을 앞당긴 적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지는 ‘이 총재의 암묵적 목인 아래 행해진 인사 전횡과 노조 탄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 총재 재임 중 한국은행에서 인사 전횡과 노조 탄압이 자행되었거나 이 총재가 이를 묵인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1



한 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덟 살에 처음 전화번호가 생긴 당신
방향 감각은 없지만 드라이브가 로망인 당신
눈 뜨면 날씨보다 음악 차트를 먼저 확인하는 당신
드라마 밤샘 정주행이 주말의 행복인 당신
종일 비워두는 집이 염려되는 당신
출근 없이도 그룹통화로 회의하는 슈퍼맨 당신
걱정이 많은 올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미소 짓는 당신
당신이,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SK텔레콤은 다 다르기에

오직 당신을 위한 SK텔레콤
그래서 5,000만 개의 SK텔레콤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